

2008 Come Together **행**

행사 현장에서만 46억 모금 ... 올해만 110억원 모금 성과



동문기부를 통한 대학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지난 13일에 열린 '2008 Come Together' 행사가 성료됐다. 또한 오늘 'Come Together' 행사를 비롯한 기부약정식을 통해 이날 하루만 46억이 모금돼 올해 기부모금액이 약 11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목표되었던 1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은 결과다.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신라호텔 다이내스티 홀에서 열린 '2008 Come Together' 행사는 모교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 각계각층의 동문 약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사장 영배스님, 오영교 총장, 전승표 총동창회장은 환영사로 국제관 건립을 비롯해 학교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동문들이 발전기금 모금에 적극 동참할 것을 피력했다. 오영교 총장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대학이 명문사학으로 발전하려면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며 대학 발전을 위해 동문들의 발전기금 기부를 호소했다. 이재용(수교88졸), 양승은(연극07졸)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된 1부 행사는 우리대학의 비전을 담은 영상과 함께 김희옥(법학72졸) 헌법재판관,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등 Come Together 행사를 위한 동문들의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이밖에 정동일 중구구청장, 박상민(법4) 군, 이병기 할머니의 특별한 기부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행사에서는 모두 4건의 발전기금 약정식이 체결됐다. 우리대학과 산학협력 MOA를 체결한 (주)휴림 바이오셀이 30억원을 기부했다. 또한 한의학과 동문회가 5억원을 약

정했다. 또한 우리대학과 공연 클러스터 구축 MOU를 체결했던 (주)IHQ가 총 3억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2명이 학교발전을 위해 1200만원을 기부해 동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했다. 행사에 참여한 남상민(한의학과 85졸) 한의학과 동문회장은 "동문들을 위해 매년 큰 행사를 개최하는 학교 측에 감사하다"고 하며 "모교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기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뤄졌던 약정식에서 기부는 끊이지 않았다. 태암 선생이 1억원, 불교대학 CEO과정 8기 동문 일동 6000만원, 이창규 동문 5천만 원 이외에도 약 157여명의 동문들이 현장에서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4건의 약정식과 행사장 내에서의 약정을 통해 이날 약 46억원의 발전기금이 약정됐다. 이를 통해 우리대학은 당초 예상했던 2008년 발전기금 목표 예상액 100억원을 초과한 약 110억원을 모금했으며 이는 향후 국제관, 한의학과, 동창회관 건립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재 기자
wonder@dongguk.edu



문화콘텐츠사업 급물살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소 현판식이 지난 19일 학술관 401호에서 열렸다. 사진은 최순열 부총장, 김병욱 예술대학장, 이종태 산학협력담당, 신영석 CT연구소장 등이 현판식을 축하하는 모습이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동악로에서

에코불감증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서울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인다! 봄에 오면 좋겠다" 지난 11일 '하늘마루' 완공식에 참여한 한 학생의 반응이다. '하늘 마루'는 '하늘'과 지붕이나 산의 정상을 의미하는 고유어 '마루'가 조합된 말로, 최근 완공된 옥상정원의 공식 명칭이다. 서울시에서 공모한 '2008 옥상공원화 지원 사업'에 채택된 후 △동국관 △만해관 △학림관 △학생회관 △회화관 △학술문화관 총 6개의 건물에서 옥상녹화 사업이 이뤄졌다. 이번 옥상녹화사업에 대해 사업개발본부 측은 "건물별 단열효과 뿐만 아니라 학내에 부족한 녹지를 확보해 학생들이 옥상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옥상정원 완공은 우리 대학의 에코캠퍼스에 첫 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달리 정작 학내 구성원들은 새로운 에코 캠퍼스 구축에 맞는 환경 의식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일 만해광장에서 열린 '육.점.이.오 원정대' 녹화 현장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렸다. 그러나 녹화 직후의 만해광장에는 학생들이 남긴 쓰레기들이 남겨져 있었다. 각종 체육대회가 열렸던 10월의 만해광장은 녹지 조성 등 의형적인 모습과 함께 구성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학내 구성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

다"며 환경의식을 강조했다. 에너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학내 구성원들이 집으로 돌아간 시간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빈 강의실과 건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소등시간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규칙들을 아직 체계화하지 않았다. 옥상녹화사업의 완공으로 에코캠퍼스 구축을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환경보호 의식은 아직 미흡하다. 진정한 에코캠퍼스는 녹지 조성 등 의형적인 모습과 함께 구성원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학내 구성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

외국인 유학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

유학생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의무화 등 대책필요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 유학생들이 학교생활 및 강의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대학에는 약 600명의 외국 유학생들이 입학하여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많은 수의 외국 유학생들이 생활하며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언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동산(사과대1)씨는 "한국어 수업을 이해하기 힘들다. 언어의 이해도 힘들뿐더러 교수님의 말씀도 빨리 공부하기 힘들다"며 유학생으로서 겪는 고통을 털어냈다. 외국인 학생들이 겪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업 중 레포트 과제나 팀플 과제 또한 그들이 겪는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스리랑카에서 온 유학생인 딘산(문과대1)씨는

"한국어로 레포트를 쓰다보면 한국 학생들보다 양이나 질 면에서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세대나 고려대 등에서는 한국어 능력뿐 아니라 영어 능력도 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에 자격조건으로 두며, 자격조건을 통과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강의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상명대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강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유학생들의 생각은 학교 측과는 대조적이다. 대부분의 해외 유학생들이 한국어의 배움을 목적으로 한국에 왔기 때문이다. 중국인 유학생 왕홍도(문과대1)씨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자국어나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외국 학생들의 문

제에 관하여 학교 측도 외국인 학생의 상담 및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방면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우리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인 자를 선발하며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4일 한 시간 30분 정도로 무료로 한국어 수업을 해주고 있다. 또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도우미 이랑을 통해 학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외국인서비스센터에서는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학교 측의 홍보 및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외국인 지원 서비스의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해 학교당국은 외국 유학생의 체계적 관리 및 프로그램 홍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 jeong0424@dongguk.edu

대학원 총학생회장 26~27일 선거

안영규-하주연 조, 김선희-이아람 조 입후보



▲ 안영규-하주연 조



▲ 김선희-이아람 조

일반대학원 제25대 총학생회 선거에 기호 1번 안영규(경찰행정학과)와 기호 2번 김선희(미술학과 석사과정) 조, 기호 2번 김선희(미술학과 석사과정)-이아람(국어국문학과 석사과

사범대 창립 40주년 행사 학과별 네트워크 강화

사범대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학과별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국교과는 지난 22일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08학번 37명 전원을 졸업 동문 37명이 멘토 결연식을 맺었다. 역교과 또한 지난 17일 역교인의 밤 행사를 갖는다. 지교과는 40주년 기념행사에서 다류영상을 만들어 동문과 재학생이 하나 되는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수교과는 40주년 Homecoming Day 행사를 가졌다.

농구대잔치 출전 단대, 고대 꺾고 2연승

우리대학 농구부가 'KB국민은행 2008 농구대잔치'에 출전해 단대와 고대를 꺾고 2연승을 기록했다. 단국대와 20일 열린 첫 시합에서 88대 78로 승리를 거둔데 이어 22일 고려대와의 경기에서 82대 53으로 승리해 2연승했다. 이번 대회는 총 12개 팀이 참가했으며 A, B 두 개 조로 나뉘어 예선 경기를 가진다. 우리대학은 고려대, 단국대, 명지대, 상무, 한양대와 함께 A조에 속했다. 농구부는 상무와 24일 다음 시합을 가진다.

우수장학금 신청 안내

- 1. 장 학 명:** 우수장학
- 2.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재학생으로 우수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
가. 2008~2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4학년은 12학점),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특목합격 미달 및 평균평점이 3.0미만인 경우 추후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나. 교내·외의 타 장학금을 받는 자는 유리한 장학금 선택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금 예외)
다. 2009~1 학기 복학예정자 제외
- 3. 신청기간:** 2008. 11. 17(월) ~ 11. 28(금)
- 4. 신청방법:** 홈페이지(my-page)/우수장학신청 -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하면 on-line 상으로 제출이 완료 됨
- 5. 평가기준:** 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대학 학사운영실에 문의바람
- 6. 제출서류**
가. 장학금신청서(소정양식) : on-line 신청
나. 사회봉사인증서
1) 교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봉사기관에서 작성한 봉사활동 증명서류를 사회봉사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자동 점수 처리 됨.
2) 동국참사랑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자동 점수 처리됨.
3) 사회봉사경력에 졸업 시 까지 계속 인정됨.
다. 학업성적은 자동으로 점수 처리됨
- 7. 강의평가 관련 안내**
가. 강의평가 시행여부는 우수장학 평가 시 반영됨
나. 우수장학 신청시 강의평가를 반드시 하여야 함. 단 급변학기에 한하여 1차 강의 평가 미실시자 중 2차 강의평가 실시자는 신청이 가능함
다. 2차 강의평가 미실시자는 우수장학신청이 불가함
* 장학금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우수장학금을 수혜 할 수 없으며 단과대학 수석장학, 전공수석 장학은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성적순에 따라 선발함.
* 보훈자녀 등 계속장학 대상자는 신청대상이 아님
*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단과대학의 선발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학사지원본부

2009년 제2기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 선발 안내

- 1. 장학내 용**
- 연간 최대 \$50,000까지 3년간 지원 (등록비용 및 체재비 포함)
* 등록금 및 체재비는 지원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된 금액으로 함
- 2. 지원 자격 및 조건**
- 본교 학부졸업생 및 09년 2월 졸업예정자 (경주캠퍼스 포함)
나. 지원 대상 학교의 09년 9월(가을학기) 박사 또는 석사사 통합 과정 입학 지원자 (석사과정 지원 불가)
다. 미국 내 분야별 대학원 전공 평가 순위(美 US News & World Report 순위가 5위 이내인 대학의 석사사 통합 및 박사 과정으로 지원한 자 (단, MBA 및 모스콜 과정은 제외함)
라. 평가기준 : Engineering / Medicine / Education / Social Science & Humanities / Public Affairs / Fine Arts / The Science 총 7개 분야의 세부전공학과 순위
- 3. 선발인원:** 0명
- 4. 선발기준**
- 성적(학부/대학원 평점 및 CBT/GRE 점수) + 면접(전공, 영어 구술시험)
* CBT 점수 및 IBT 성적도 제출 가능
- 5. 제출서류**
가. 동국 100주년 파워엘리트 장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지원 대상학교의 입학허가 예정서(해당자에 한함) 및 지원 확인서 1부.
다. 본교(학부) 성적증명서(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은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1부.
라. CBT(또는 IBT, GRE 성적표) 각 1부(유료기간 이내 성적표 <CBT-2년, GRE-5년> 제출)
마. 자기소개서 및 학업이수계획서(소정양식), 주민등록 등본 각 1부.
바. 2인 이상의 추천서(소정 양식) 사. 지원 대상학교의 전공 평가순위 자료(www.usnews.com 참조)
- 6. 접수처**
-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본관 2층)
- 7. 전형일자**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나. 2차: 면접 (전공 및 영어 구술시험)
- 8. 선발일 정**
가. 접수: 08.12.15(월) ~ 12.31(수)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09.1.9(금)
다. 2차 면접전형: 09.1.14(수)
라. 최종 선정자(예비합격자) 발표: 09.1.19(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시 공지 예정임
- 9. 기타 유의사항**
가. 장학금은 매년 학기별 '학위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양식은 추후공지)
나. 박사 학위 미 취득 시 중도 포기자로 간주하여 기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지원대학 admission 취득 후 즉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선정자(예비합격자)는 학기 시작 전 지원대학의 최종 admission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학기 성적증명서를 학기 종료 직후 취업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라. 매학기 백분위 환산점수가 87점 미만일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마. 박사 학위 취득 기간은 최초 입학년도부터 총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선발이 확정된 자는 반드시 당해 연도 입학 시기에 등록을 필하여야 함
사. 수혜 기간 중 소속 학교에서 기타 장학금(RA, TA 등)을 수혜 받을 경우 체제비만을 지급함(RA,TA 취득 여부별 매학기 학위취득결과보고서를 통하여 보고)
아. 지원 대학 평가순위는 美 US News & World Report 의 가장 최근 세부전공순위만을 참고하여야 함.
- 10. 문의**
-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김준영 (02-2260-3053, job@dongguk.edu)

학생경력개발원 취업지원센터

동국시나리오공모전 개최 안내

- ◆ **사업목적**
가. CT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 부여
나. CT중심의 대학원 교육 활성화
다. 학생들의 창작능력 증진
 - ◆ **신청자격 및 신청단위**
가. 신청자격: 2008학년도 2학기 현재 본교 학부/대학원(석사) 재학생/수료생
나. 신청단위: 개인
 - ◆ **신청 및 접수기간:** 2008. 12. 10(수) ~ 12. 12(금)
 - ◆ **공모부문:** 희곡, TV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 ◆ **제출기준 및 형태:** A4 규격을 중심으로 자유형식으로 작성
 - ◆ **심사항목 및 배점:** 표현력 40%, 창의력 40%, 정서법 20%
 - ◆ **수상작 발표:** 2009. 1. 8(목) 본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 **시상내용**
- | 수상명 | 선발작품(수량) | 시상내용 | 특 전 |
|-----|------------------|---------|--|
| 대상 | 각 부문별 1명 (총 5명) | 각 400만원 | 졸업 후 1년 이내 본 대학원 입학 시 장학금 지급(등록금 50% : 1학기 지급) |
| 최우수 | 각 부문별 2명 (총 10명) | 각 200만원 | |
| 우수 | 각 부문별 2명 (총 10명) | 각 150만원 | |
| 입상 | 각 부문별 6명 (총 30명) | 각 30만원 | |
- * 우수 작품이 없을 경우, 해당부문 수상자가 없을 수 있음.
 - * 신청서 제출 시 참여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 ◆ **유의사항**
- 중복 지원은 불가함.
- 타인저작권 침해 작품, 제작사실이 허위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입상작품으로 선정된 후 해당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함.
- 제출된 서류 및 작품은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 및 운반과정에서의 분실 및 파손,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주최측에서 지지 않음.
 - ◆ **제출물(신청서 접수 시 제출):** 공모신청서 1부, 시나리오 1부
 - ◆ **접수 및 문의처:** 영상미디어대학/영상대학원 학사운영실 (해화빌관 1층), 02-2260-3762-3
 - ◆ **첨부서류:** 공모전 신청서(각 부문별)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 기호 1번 안시준 (정 후보자·컴공4)



▲ 기호 1번 이형근 (부 후보자·생화공4)



▲ 기호 2번 신동욱 (정 후보자·법학4)



▲ 기호 2번 이은지 (부 후보자·사회학4)

본사·DUBS 공동 주최 41대 총학생회 정·부 후보자 좌담회

학생의견 수렴 총학생회 구성 목소리

1번 후보 "말보다 직접 행동으로 공약을 실천하겠다"

2번 후보 "직접 학우들을 만나며 의견 수렴하겠다"

▲사회 = 이번 좌담회는 41대 총학생회 선거를 맞이해 유권자인 학우들에게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 마련했다.

▲기호 1번 안시준 정 후보자 = 학우들을 위해 말 뿐 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약을 생각했다.

▲기호 2번 신동욱 정 후보자 = 총학생회장 선거에는 이번이 세 번째 입후보다.

총학생회 위상 재점립

▲사회 = 올해 총학생회 구성 실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학생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기호 2번 이은지 부 후보자 = 11월달 선거는 중선관위 위원장의 무책임한 행동에 기인했다.

▲기호 1번 이형근 부 후보자 = 학생사회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 당국이 개입하여 총학생회 구성이 실패했다.

사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 = 이번에 구성되는 총학생회의 가장 큰 과제는 노선이 엇갈려 의견이 쉽게 모아지지 않는 각 단과대의 의사를 민주적인 협의를 거쳐 이끌어내는 일일 것이다.

▲기호 2번 신동욱 = 각 단과대 학생회와 학우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서 총학생회가 신뢰를 다시 얻고 위상에 걸맞게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호 1번 안시준 = 단과대 학생회장을 역임하지는 않았지만 단과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었다.

▲사회 = 작년 촛불시위와 같은 학생회의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기호 1번 이형근 = 학생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학생회장은 대표자로서 학생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호 2번 이은지 = 학생들이 사회에 전혀 무관심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41대 총학생회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본지와 교육방송국 DUBS는 안시준-이형근 후보, 신동욱-이은지 후보와 함께 정책과 공약을 얘기해 보고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총 학생회 후보자 좌담회를 마련했다.

참석자 : 기호 1번 안시준 (정 후보자·컴공4) - 이형근(부 후보자·생화공4) 조 기호 2번 신동욱 (정 후보자·법학4) - 이은지(부 후보자·사회학4) 조 사회 : 박양지 (DUBS 보도부장) 일시 : 2008년 11월 19일 오후 8시 장소 : 동국미디어센터 DUBS 스튜디오

등록금 문제

▲사회 =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학교당국과 어떤 협의과정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 듣고 싶다.

▲기호 1번 안시준 = 등록금 인상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총장님께 직접 건의하겠다.

▲기호 2번 이은지 = 등록금 동결 문제는 2번 선본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다.

철저하게 하고,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개한다면 학생들의 신뢰가 쌓일 것이다.

총장의 개혁정책

▲사회 = 현 오영교총장의 개혁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기호 2번 신동욱 = 오영교 총장은 올바른 기준을 동국대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잃게 하고 있다.

▲기호 1번 안시준 = 초기 오영교총장의 정책은 학생들의 편을 위한다고 생각했다.

▲사회 = 각 후보 진영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2009년 총학생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호 1번 이형근 = 첫째,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즐겁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호 2번 이은지 = 학생회 다른 학생

회를 만들겠다. 학우들이 주인인 학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 마지막으로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다.

▲기호 2번 신동욱 = 두 차례의 선거무산에 겪고 많은 고민을 했다.

▲기호 1번 안시준 = 우리학교 학생들이 동국대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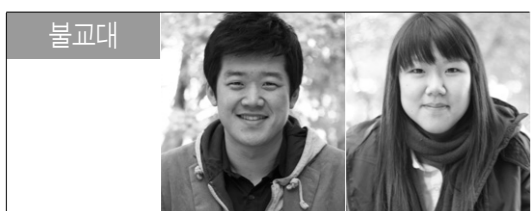
▲기호 2번 이은지 =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기호 1번 이형근 = 백마디 말보다 한번의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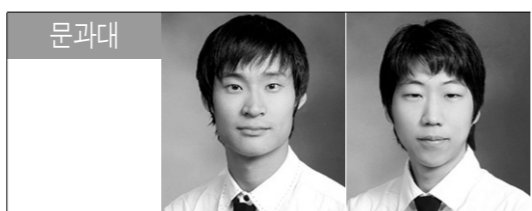
학생자치기구 후보자 공약

2008년 학생자치기구 후보 등록결과 11개 단과대 중 9개 단과대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본사에서는 각 단과대 학생회 입후보자들의 공약과 면면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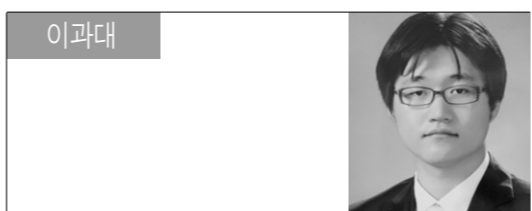
정 횡주상 (인도철4) 부 오수기 (선학2)

- 1. 공간문제 해소를 위해 전공강의실을 확보하고 학사지원실을 재배치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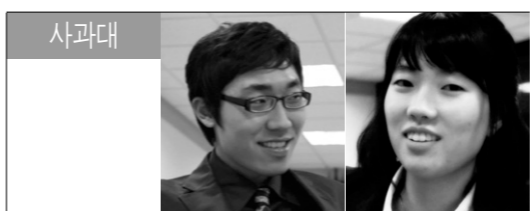
정 박인우 (윤리문화3) 부 이윤하 (사학4)

- 1. 문과대 학생회 전용폰을 개통하여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겠다.



정 광명구 (화학4)

- 1. 강의실 리모델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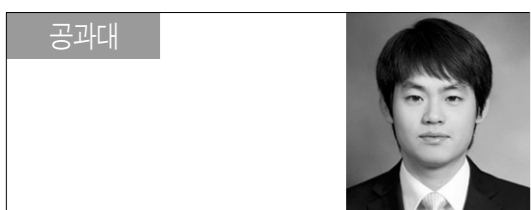
정 경정원 (사회학4) 부 유애리 (경제3)

- 1. 사회과학대 신문과 웹진을 발행하여 학우들의 소통을 돕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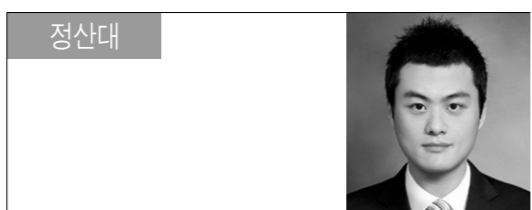
정 경순현 (국제통상2) 부 홍초희 (회계3)

- 1. 여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여학생 전용 휴게실을 만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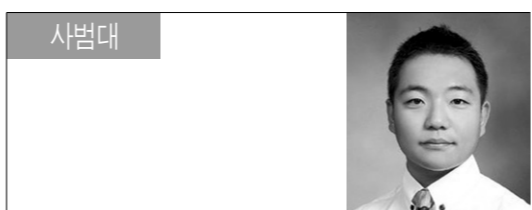
정 이혜인 (사회환경시스템공 2)

- 1. 부족한 프린터기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셀프 프린터를 설치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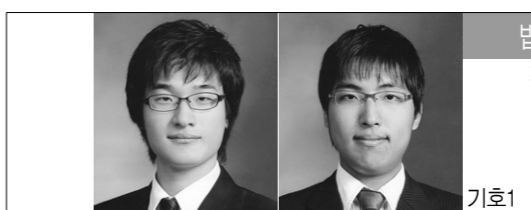
정 경웅 (컴퓨터공 3)

- 1. 강의실 열람실화하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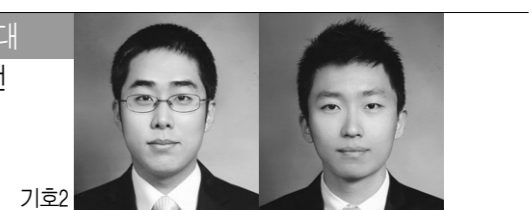
정 장재성 (국어교육3)

- 1. 총학과 연계하여 등록금 상한제를 지지하겠다.



정 권기홍 (법학2) 부 안근수 (법학2)

- 1. 단과대 운영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학생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정 남현웅 (법학3) 부 김현진 (법학3)

- 1. 전과생과 편입생들을 위한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

제41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 공약 분석

2% 부족한 공약, 현실 고려한 고민 필요

이미 시행된 사업과 유사 ... 이해 부족한 '급조공약' 문제



기호 1번 안시준·이형근 후보

1. 등록금 사용 내역 등록금 고지서에 기록
2. STX, 한미건설, 동국제강, 동국해운, 진로, 하이트 등 취업 박람회 유치
3. 학교 근처의 식당 카페 술집 등 동국인들이 즐겨 찾는 곳 코끼리 카드로 할인 가능
4. 코끼리 카드와 연계해 업그레이드 된 (시내미아 데이) 실시

일만이전동국대학교 학생의 대표자를 뽑는 총학생회 선거가 25일부터 시작된다. 비록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는 큰 선거가 아니지만 학생들이 속한 각각의 학과와 단과대, 또 중앙 선거 기구의 수장을 결정하는 선거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기구다. 이런 학생회를 건설하는 선거에서 학생들이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뽑기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이번 41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기호 1번 안시준·이형근 후보(이하 기호 1번)는 '등록금, 취업, 복지, 문화, 기타' 분야로 공약을 세분화 했고, 기호 2번의 신동욱·이은지 후보(이하 기호 2번)는 '소통 문제, 등록금 문제, 복지 문제'로 세 부분으로 공약을 나누고 있다.

▲ 등록금 문제

여기서 두 후보 조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공약을 살펴보자.

기호 1번은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고 등록금의 평균인상률을 파악해 등록금 사용내역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내역들을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기호 2번은 등록금 문제가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교육공동행동'으로 정부와 사립대학들에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 취업

취업과 관련된 공약에 대해서는 기호 1번은 장충 체육관에서 STX, 한미건설, 동국제강, 동국해운, 진로, 하이트 등의 취업 박람회 유치가 확정 되었다고 밝혔다.

기호 2번은 유명중소기업 취업 박람회를 열어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폭과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 학교 서비스와 유사한 공약

후보자들이 내건 복지와 문화 부문 공약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학교의 서비스와 유사한 공약들도 여럿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호 1번은 '동국 홈커밍데이'를 학생들의 인맥을 넓히는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동국 홈커밍데이'는 현재 대외 협력실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행사다. 또 학사행정 부분 공약으로 언급된 'CS광장'도 이미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다.

기호 2번 부학생회장 후보 이형근 군은 "동국 홈커밍데이는 현재 학생과 동문과의 소통 비중을 학교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옮기고 싶은 취지였고, CS광장은 학생들의 요구 중 학교 측이 해결하지 않는



기호 2번 신동욱·이은지 후보

1. 다른 대학과 연계해 등록금 동결 실시
2. 정책 투표제, 여론 게이지를 통한 소통 창구 마련
3. 동국 ZONE 구축과 동국 멤버십 할인 카드 발급
4. 동국 챔피언스 리그, 택리지, 취약지역, 무선랜 설치/확충

부분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기호 2번의 경우 '도서관 책 제자리 찾기' 공약도 이미 중앙도서관에서 '도서 확인 요청'이란 코너에 실시간 답변으로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였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학생이 책을 찾을 때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를 위해 도서관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도서확인요청'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호 2번 학생회장 후보 신동욱 군은 "근로 학생들을 추가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불편을 없애려는 취지"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한 공약

또 사업에 대한 협의와 이해가 부족한 공약들도 있었다.

기호 1번의 '원흥관 3층 옥상정원 휴게실' 공약을 살펴보면 옥상녹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증축 등이 논의되고 있는 건물에 옥상녹화를 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원흥관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 때문에 옥상녹화를 하기 힘든 사정이다. 이에 기호 1번 측은 "현재 3층 휴게실이 열려있지 않고 막혀있는데 문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한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기호 2번은 '생협과 함께 하는 등록금 장기대출사업'을 들고 나왔다. 취재 결과 적립된 장학금의 이자로는 이의금의 규모가 대출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되기에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의금 관리의 생협이 아닌 학생, 학교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생협 혼자 이런 일을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기호 2번 측은 "멤버십 카드를 통해 학생들의 조합원 가입을 독려해 수익 구조를 확대할 생각이다. 또 이의금 관리 부분에 있어 이사회에서 조합원들과 협의를 통해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 등록금 대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들고 나온 동국 대학생을 위한 할인 혜택, 즉 기호 1번의 '코끼리 카드'와 기호2번의 '동국 ZONE 구축, Membership 할인카드'와 같은 학생 할인 공약은 학교 주변 상인들과 학생의 협의를 통해 실현하기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은 말 그대로 '공적인 약속(公約)'이다. '공허한 약속(空約)'이 되지 않으려면 처음 내세울 때부터 현실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의 주권을 이행하는 학생회의 공약은 좀 더 신중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당신의 한표가 만들어내는 학생자치 우리 대학 민주주의 주체는 학생

민주주의는 주인의 권리가 민(民)에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民)은 다양하고 그 수 또한 많다

내일(25일)부터 27일까지 총학생회 및 중앙기구의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가 시행된다. 선거에 출마해 열심히 유세했던 후보자들에게 당락의 운명이 결정되는 슬막하는 날들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제도는 대부분 대의 민주제다. 그러한 대의민주제에서 선거는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가장 기본적인 고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한다. 서양 민주주의의 모토라 불리는 아테네의 경우에는 아크로폴리스에서 모든 시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의사가 결정됐다.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강제적인 근대화'를 경험했다. 하지만 급격한 민주주의의 이행은 조선시대의 왕정과 일제의 억압적인 통치에 익숙해져 있던 시민들에게 낯선 것이었다.

이때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진출하고 남한과 북한에는 단독 정부가 세워졌다. 냉전은 곧 6·25년 비극적인 전쟁을 불렀고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이 권력을 손에 쥐었다.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정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벌였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 후 장면 정부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며 민주주의는 퇴색하게 되었다. 전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컸었고 각 대학생들의 자유를 열망한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의식들은 정점에 달했다.

하지만 점점 사회가 독재 체제에서 민주적으로 바뀌게 되고 1997년 IMF시대가 오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대학 사회에서 학생들의 사회적인 관심은 줄어들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자기 자신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던 1980년대 이후 대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최근의 우리대학 총학생회 투표율을 살펴보면 2002년 48.87%, 2003년 51.8%, 2004년 무산, 2005년 52.1%, 2006년 50.72%로 겨우 당선 한계선인 50%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고 인터넷이 보편화된 지금엔, 다양한 가치와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역대 총학생회장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시대상황이 바뀌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선거는 그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는다. 현실에서 시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는 사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보다 소수의 엘리트들이 대중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하는 엘리트주의와 가깝다. 그 대표자를 감시하고 누구를 뽑는가는 시민들에 달려있다.

대표자가 내가 원하는 정책을 똑같이 시행할 순 없지만 적어도 자신과 맞지 않는 후보자를 찍지 않을 수 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대표에 적합치 않은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관심이 낮으면 대표자들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우리가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 그 당위성에 있어서 학생들의 높은 참여율은 학생들의 의견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학생회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이영호 기자
blueeagle@dongguk.edu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좌 안내

사이버-사회교육원 명리학강좌 개강 안내

■ 강좌안내

NO	과정명	수강료	개강일(예정)
1	대덕 김동완 선생의 사주명리학 초급	300,000원	2008. 12. 1
2	대덕 김동완 선생의 사주명리학 사주풀이 I	200,000원	2008. 12. 1
3	대덕 김동완 선생의 사주명리학 사주풀이 II	200,000원	2008. 12. 1
4	대덕 김동완 선생의 성명학	300,000원	2008. 12. 1
5	대덕 김동완 선생의 TAROT	300,000원	2008. 12. 1

■ 교육특전

-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초, 중, 고급 모두 수강 시)
- 대덕 김동완 선생 특별강좌의 수강료 무료(년4회)
- 유의사항 - 납입한 수강료는 환불 또는 수강기간 연기 불가
- 문의처 :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 (02) 2260-3728-9 홈페이지 : http://edulife.dongguk.edu

사이버-주산활용수학교육사 수강생 모집안내

- 수강신청장차 - 사이버-주산활용수학교육사(기초) : 300,000원
- 사이버-주산활용수학교육사(심화) : 300,000원
- 담당교수 : 김 선 태 교수(e-mail: daehan3117@hanmail.net, 017-202-3777)
- 사회교육원 : 02-2260-3728

■ 교육특전

- 90시간 이수 후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수료 후 자격시험 합격 시 동국대학교 총장 또는 사회교육원장 명의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자격증 발급
- 취업추천 및 창업지도

- 수강신청기간: 2008년 11월 17일 ~ 11월 30일 17:00
- 수강신청방법: 사이버-사회교육원(http://cyber-edulife.dongguk.edu) 회원가입 > 수강신청 > 카드결제 * 부득이하게 카드결제가 불가능 할 경우 전화주세요!
- 수 강 기 간: 2008년 12월 1일 ~ 2009년 2월 28일(3개월)
- * 수강 후 3개월 동안 복습이 가능합니다.
- * 사정에 따라 일정조정이 가능합니다.
- 유 의 사 항 - 납입한 수강료는 환불 또는 수강기간 연기 불가

아동미술심리지도사 겨울방학 특강 안내

미술치료란, 매체를 경험하며 작업과정속에서 내면과 무의식을 탐색하고 내면적 갈등을 스스로 치유해가는 과정입니다. 아동의 미술적 심리발달을 연구하여 나아가서는 노년기까지의 전 인간의 문제적 갈등을 예방, 치유하며 지적증도 준비합니다.

- 교육기간 : 2008년 12월 20일(토) ~ 2월 28일(토)
- 7.5주 각 강좌별 45시간

- 강의시간 : 초급반 : 토요일 10:00 ~ 17:00
- 중급반 : 수요일 10:00 ~ 17:00
- * 초급반, 중급반 동시 수강 가능합니다.

- 수강료 : 과목당 330,000원

■ 특기 사항

- 180시간 이수 후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대학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 아동미술심리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응시자격 부여

■ 자격취득요건

1. 본 과정 180시간 이수자로 자격기본법 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전문대학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접수기간 : 2008. 12. 1(월) ~ 12. 13(토)

- 접 수 처 :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계좌입금 후 전화 (T.2260-3730/3729) (신한) 계좌번호 140-002-017211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겨울방학특강 안내

개설강좌명	담당교수	강의시간 및 요일	수강료	개강일 강의기간
타로카드	김동완	월, 목 오전10시~12시	250,000	12월22일(월) 4주 16시간
육효	김동완	월, 목 오후1시~3시	250,000	12월22일(월) 4주 16시간
기문정명초초급특강	김기정	수 오전10시~1시	100,000	2008.12.24(수) 8주
육임초급특강	이우산	수 오후2시~4시	100,000	2008.12.24(수) 8주
육임중급특강	이우산	화 오후2시~4시	100,000	2008.12.23(화) 8주
육임고급특강	이우산	화 오후6시30분~8시30분	100,000	2008.12.23(화) 8주
기분한문 특강	이한성	화, 수 오전10시~1:00	100,000	2008.12.23(화) 5주
선무도 특강	해각스님	목 오후7시~9시	100,000	2008.12.18(목) 8주
렌즈로 본 세상 (사진촬영반)	이성만	월 오후2시~4시	100,000	2008.12.22(월) 8주
참선수행	진성스님	화 오후2시~4시	100,000	2008.12.16(화) 9주

- ▶ 접수기간 : 2008. 12. 1(월) ~ 12. 13(토) 오전 9시~오후5시
- ▶ 접수방법 : 사회교육원 홈페이지 수강신청 또는 학사운영실 직접 신청
- ▶ 수강료납부방법 : 가. 계좌이체 (신한)140-002-017211 (예금주:사회교육원) 나. 카드수납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 ▶ 문의처 : ☎ 02-2260-3730
- ▶ 사회교육원홈페이지 : http://edulife.dongguk.edu



동대신문은 중소기업청의 후원을 받아 '대학생 중소기업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번호와 다음호(12월 1일자) 2회에 걸쳐 특집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눈을 돌려 99%의 넓은 취업의 문을 바라보자

개인발전 기회 제공하는 중소기업 취업 적극 고려해 보길

최근 여기 저기서 취업알선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취업이 힘들긴 힘든 모양이다. 요즘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현실을 바라볼 때 대학을 졸업한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다. 밥값, 새벽잡을 설치며 어렵게 대학진학에는 성공했으나, 취업을 위해 대학에서도 고등학교 못지 않게 공부를 해야 하며, 어학연수다, 자격증취득이다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을 취업준비에 투자해야 하니 말이다. 더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도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 대기업 취업경쟁률은 평균 120대 1이며, 하반기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취업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대기업 취업 전쟁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혹자에 의하면 과거 많은 대졸자들이 공무원시험을 위해 재수, 삼수를 하는 것처럼, 대기업 취업을 위해 재수, 삼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하다. 지난해 중소기업청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경기부진과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4%대에 이르고 있으며, 고기술을 보유한 고화력 소지자 인력부족률은 5%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4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업체비중 99%, 고용비중 88%를 차지하며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이 매

년 취업시즌마다 이토록 외면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국민 대다수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낮은 사회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자리 측면에서 "무조건 대기업은 좋고, 중소기업은 나쁘다"라는 규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다수 국민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중소기업이라 하면 불안정한 경영,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보다 많은 개인발전 기회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과는 달리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적지 않은 수가 대기업 못지 않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와이지원, 주성엔지니어링, 흥진HJC 등 일부 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무한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개인의 발전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첫째 대기업에서는 직원들이 하나의 부서쯤처럼 적은 영역의 업무만을 담당하나 중소기업 직원들은 폭넓은 업무를 담당하므로 다양한 업무경험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업무경험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다른 기업, 다른 분야로의 적응에 도움을 주는 한편, 경영자의 자질을 함양시켜 훗날 훌륭한 경영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자신의 능력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대기업의 경우 입사 후 과정까지 진급하는 데 평균 7~8년이 걸리지만, 중소기업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4~5년이 걸리는 등 승진이 빠르며, 업무의 권한도 많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된다.

셋째 대기업보다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직원이 40대 중·후반에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50대 중·후반, 심지어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 내 친구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기업에 취업한 친구들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친구들이 성공한 예가 더 많은 것 같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취업은 개인의 발전과 미래를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취업을 준비중이거나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대졸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고려해 보기 바란다.

괜찮은 중소기업 찾기

덧붙여 중소기업중앙회에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좋은 중소기업을 찾고, 중소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데 다소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괜찮은 중소기업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주식시장에 공개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알토란 같은 중소기업이 많으므로 인터넷과 신문, 경제지 등을 통해 유망한 중소기업 소개

란을 참고하거나 '전국중소기업인대회', '상공의 날', '무역의 날' 행사 등에서 상을 받은 중소기업들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

이러한 방법으로 관심있는 기업을 찾은 후에는 회사 홈페이지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기업정보 사이트 코잡비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지식나눔터를 이용하여 CEO 비전과 경영철학, 재무구조, 업력, 보유한 기술 등을 꼼꼼히 살펴보자. 그리하면 그 회사의 경영상태와 미래발전 가능성, 자신의 적성과 일치여부 등 취업에 참고할 만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취업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는 노동부 워크넷,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취업알선 사이트와 언론 등을 주로 활용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공개채용보다는 비공개, 수시 채용이 많으므로 해당기업 홈페이지나 인사담당자를 통해 취업정보를 얻는 것이 효율적이지 참고하기 바란다.

부족하지만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 취업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렸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학졸업자들이 1%도 안되는 대기업의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에 집착하지 말고, 99%에 이르는 넓은 취업의 문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성공기회를 제공해 주는 중소기업에 눈을 돌려 보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 구 수 과장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산업 특성 또는 시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법령 또는 지침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일반적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상한 기준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각 업종별로 규모기준을 규정하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경우, 도소매·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300인부터 50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원부터 500억원까지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기준을 규정하여 기업이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과 도소매·서비스업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은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연방규정 제13권 제121장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에서 1,200개 내외의 업종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세부 업종별로 500인에서 1500인까지, 광업은 500인 이하, 도매업은 100인 이하, 소매업은 세부업종별로 600만불에서 2,450만불 이하 등을 Small Business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中小企業基本法'에서 공업·광업·운송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원 이하, 도매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원 이하,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소매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EU에서는 업종별 구분을 두지 않고 단일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수 250인 이하로서 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이고 매출액 1천만 유로 이하인 기업은 소기업,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이고 매출액 2백만 유로 이하인 기업은 영세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수나 자산액·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어디까지나 특정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므로 확정된 어떤 범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경제상황 및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생각을 바꾸면 일자리가 보입니다 중소기업 바로보기 당신의 내일이 보입니다



중소기업을 통해 세계시장과 먼저 만난
20대 디자이너 유미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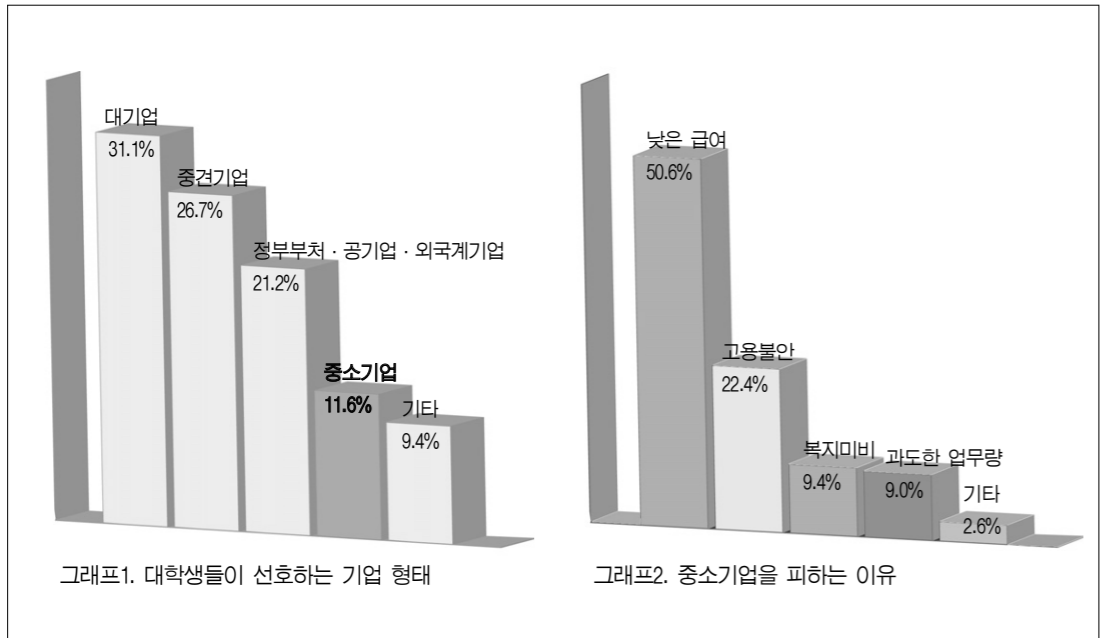
중소기업에서 남보다 빠르게 승진한
30대 수석부장 허준혁



중소기업 창업으로 남보다 먼저 성공한
30대 CEO 이광석

대학생,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 심각한 수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선입견 심각 ... 중소기업탐방 후 반응 '긍정' 변화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크게 흔들리고 그 폭풍이 국내 '취업시장'까지 강타했다. 매년 기업 채용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눈 높은' 대학생들의 대기업 공개채용만을 좇는 '솔리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채용규모가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 사이에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 취업 열기도 계속 뜨거워지는 추세다.

그러나 이같은 대기업 취업난 속에도 중소기업의 80%는 오히려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은 갈 기업이 없고, 기업들은 인재를 찾지 못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왜,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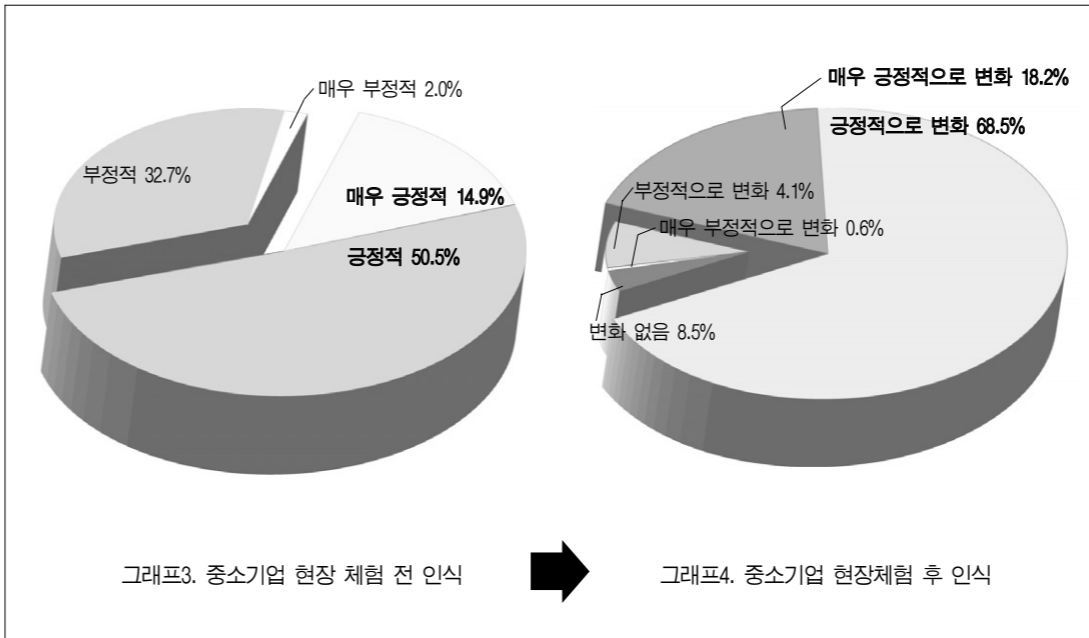
중소기업을 피하는 이유

위 결과만을 볼 때 채용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열에 한 명 정도인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로 '모든 것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을 꼽았다. 쉽게 부도 및 파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여지급시기와 기준이 자주 바뀔 것 같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아 안정된 직장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뒤를 이었다. 최두희(회계3) 양은 "특히나 요즘과 같이 세계경제가 불황일 때는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이 더욱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 등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많은 대학생들은 '내가 생각한 직업에 조건만 맞으면 취업도 상관없다'고 대답했지만 그 조건이 대부분 대기업과 동일한 급여 및 근로 수준으로 드러났다. 김승현(법3) 군은 "만족스러운 연봉과 근무환경만 제공한다면 중소기업이라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데서 나오는 선입견도 크게 작용한다. 중소기업이 정확히 어떠한 기업인지도 모른 채 막연히 '중소기업은 싫다'는 것이다. 실제 경영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중소기업이라는 개념자체를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이름 있는 회사에 가야지'라고만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학교 취업지원센터의 한 직원도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소기업과 법적 기준의 중소기업은 다르다. 학생들은 기업의 네임벨류가 높고 조건이 맞으면 중소기업이냐며 따져 묻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탐방 후 반응 '긍정'

실제 중소기업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해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욱 증명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7월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1,7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6.8%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프로그램 참여 전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생이 65.4%였던 것에 비하면 21%나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이들 가운데 91.8%인 1,580명은 향후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식이 바뀌게 된 원인에 대한 설문에는 '중소기업은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어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가 40.5%로 1위, '나의 노력으로 회사가 성장해가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가 23.7%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술혁신·경영혁신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16.8%), '가족과 같은 회사분위기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13.7%)가 그 뒤를 이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대환(연세대 재료공학부4) 군은 "중소기업은 크게 성장하기 힘들다"라는 편견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소기업도 인재를 찾자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대학생들의 눈높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서울 소재대학에서 취업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실제 리쿠르팅이나 취업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며 "가끔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려 상담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지만 줄 수 있는 자료가 얼마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이 중소기업들의 자세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더 이상 사무실에 앉아 인재가 오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인지도를 높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데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에 심어진 중소기업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에 대한 이미지를 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가진 장점에 대한 부각시키는 활동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지원도 잇따라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 작업장의 유해 부산물 발생, 고온·고압 소음발생, 고하중 물품의 이송·질단·교환 등 전형적인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및 물질개발에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최불암, 강부자 씨등 유명 연예인 약 80여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성공을 돕는 사람들'라는 홍보대사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중소기업 홍보를 위한 활동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업 안정성이 더욱 중요시됨에 따라 대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취업재수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됐다. 이제 전문가들은 조금은 눈을 낮출 것을 권하는 추세이다.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과 복리후생제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비교적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어 구직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여건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나리 선임기자
wiki26@dongguk.edu

"중소기업 취업?"

우리대학생들의 생각은?

Q. 중소기업 취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내가 생각한 취업의 조건만 맞다면 상관없다
- △그 기업에 대해 주변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면 하지 않겠다
- △절대 하지 않겠다
- △내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OK!
-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
- △언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험 때문에 기피한다
- △첫 직장으로는 나쁘지 않으나, 끝까지 중소기업에 있고 싶지는 않다
- △중소기업에 대한 이미지는 나쁘지 않으나 나는 피하고 싶다
- △연봉만 흡족하다면 상관없다
- △모든 면에서 대기업과 비교해 나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볼 것이다
- △경력 쌓기 위해서는 구직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 △비전있는 기업이라면 관심을 것도 같다
- △친구들은 다 대기업, 나만 중소기업? 그건 안된다
- △지금 기업의 크기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 △딱히 중소기업을 생각하지 않았다
-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올까 불안에 떨면서 일하고 싶지 않다
- △"나 00기업다녀"라고 했을 때 "거기가 어디야"라고 되물어오지만 않는다던 된다

Q. 이런 중소기업이면 흔쾌히 취업하겠다

-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
- △정년보장이 잘 돼있는 기업
- △발전가능성이 큰(그 점이 보이는) 기업
- △대기업보다 역량개발제도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 △돈만 많이 준다면 흔쾌히 취업!
- △대기업만큼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회사
- △경영부분, 급여부분이 안정된 회사
-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불안을 주지 않는다면
- △연봉 3000만원이상, 4대보험, 주5일제 근무, 학자금 지원
- △폭력적인 근무환경
- △사원이 많은 기업이면 좋겠다
- △육아휴가 및 자녀보육에 대한 지원제도가 잘 돼있다면 무조건 좋다
- △실력으로만 평가되는 인사제도를 갖춘 기업
- △자기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해주는 기업
- △무조건 대기업 가겠음
-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만 주지 않으면 된다

글로벌 시대에 미국 변호사가 되는 가장 분명한 길, 나는 알고 있다!

세상을 비추는 힘 |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세상을 깨우는 이름 | UNIVERSITY

법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 문화예술법무전공 : 문화, 예술,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저작권, 문화재 관련 분야의 법률전문가 양성
- 미국법무전공 : 국제법률시장에서 활동하는 국제법률전문가 양성
- 법률실무전공 : 국내 최고의 법률분쟁해결능력 및 법률행정능력을 가진 법률전문가 양성

2009학년도 전기 법무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 2008. 11. 17(월) 09:00 ~ 11. 28(금) 17:00
 전형일 | 2008. 11. 29(토) 14:00
 합격자 발표 | 2008. 12. 5(금) 15:00
 입학상담 | 법무대학원 학사운영실 02) 2260-3742
 ※자세한 사항은 http://gslaw.dongguk.edu 참고





중소기업은 미래의 대기업

회사와 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으로 취업난 해결

본격적인 취업시즌을 맞아 구직자들의 발걸음이 바쁘다. 그런데 대학 취업박람회나 취업캠프를 통해 취업컨설팅을 해오는 취업준비생들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선택 기준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직무에 대한 발전가능성보다는 기업규모를 우선시하는 예를 많이 보게 된다. 다시 말해 취업준비생 대다수가 대기업이나 공기업만을 목표로 두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지난 8월 자사가 구직자 1,0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입사하고 싶은 기업형태로 대기업과 공기업이 53.2%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21.1%에 그쳤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급여나 복리후생이 떨어진다든 이유로 선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작고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문이나 인터넷, 주위 인맥을 통해 꼼꼼히 살펴보면 대기업 부럽지 않은 급여와 복지제도로 직

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다.

직원의 경쟁력 강화가 기업 성장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소기업만의 특색을 살린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중소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정부도 중소기업에 지원을 늘리고 있어 앞으로 인재개발과 복지제도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멀티미디어 전문기업 코아로직의 경우 대기업 평균을 상회하는 연봉뿐 아니라 카페테리아 제도를 통해 1인당 연 100만원 한도에서 직원들이 건강, 자기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 나우콤은 안식휴가제 등 선진국 수준의 휴가제도로 직원들에게 재충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난이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취업준비생 대부분은 여전히 대기업에 눈높이가 맞추어져 있다. 평균 몇 백대 일에 육박하는 취업경쟁률을 뚫고 대기업 취

업에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조건 대기업 취업만 고집하기보다는 눈높이를 한 단계 낮춰 알짜배기 중소기업 취업에 도전해 보는 것도 성공적인 취업 전략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은 미래의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가능성에 도전함으로써 회사와 내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

평생직장의 시대는 지났다. 어떤 회사냐를 선택하기에 앞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김기태 커리어넷 대표

중소기업 취업 전략 Tip 1+

취업 마인드 키우기

취업을 위해선 우선 취업 마인드를 가지는게 가장 중요하다.

첫째, 다양한 곳에서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재무구조, 매출액, 자산총액 등의 자료는 기업의 안정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한다.

관련 정보는 중소기업 정보은행(www.digitalsme.com)이나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얻을 수 있다.

또한 자본금이나 이익은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도록 한다. 영업이익률(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은 높을수록 좋으며,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10%, 서비스업은 20%가 넘으면 우량기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단기적인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최근 3~4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둘째, 수시채용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소기업은 공채를 실시하기도 하지만 작은 채용규모로 수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 채용공고에 있는지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 기업에서 비슷한 직종으로 잦은 채용을 한다면 직원의 이직률이 높다는 증거이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환(중소기업체험활동)'을 통해 미리 중소기업의 업무환경과 방식 등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다.

셋째, 실무능력을 키우고 어필해야 한다. 3~4단계를 거치는 대기업의 채용전형에 비해 중소기업의 채용전형은 보통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테스트가 많지 않으므로 따로 시험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실무능력을 제대로 어필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기반여건이 다소 취약

하므로 바로 실무에 투입되어 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 따라서 직종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경력이나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준비된 인재임을 전달한다. 입사희망 기업을 찾았다면 입사지원서를 부쳐 두루두루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준비하자.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희망하는 직종이나 임금, 근로조건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넷째, 책임감과 성실성도 중요하다. 중소기업에서는 무엇보다 지원자가 회사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얼마나 오래 일할 사람인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나치게 능력이 뛰어나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은 급세 다른 직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많아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쉽다. 규모가 크지 않기에 다양한 사람들과의 팀워크도 중요시 여기므로 이를 잘 어필하도록 한다.

알짜배기 중소기업 찾기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장래성 있는 기업선택에도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는 꼭 방문하자. 기업 홈페이지는 기업의 문화와 사업내역을 살펴볼 수 있는 점에서 꼭 방문해 보도록 한다.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자본금과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기업소개나 보도자료, 연혁 등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경영마인드와 비전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둘째, 기업평가에 객관적인 지표가 될 만한 정보를 모은다. 공신력 있는

인증을 받았거나 우수중소업체 수상 경력이 있는지도 눈여겨본다.

NT(New Technology 신기술), EM(Excellent Machinery 우수품질), KT(Excellent Korean Technology 한국 우수기술)마크 등의 기술인증, ISO9000/14000인증, 100PPM 인증, Q마크, GD마크, 기타품질인증 등 인증획득 기업과 최근 2년 이내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상을 수상한 기업 등은 신뢰할 만한 기술이나 사업모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기사스크랩으로 유망 업종을 파악하자. 평소 기업관련 기사스크랩을 작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까. 아울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보 전략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2004.7.7) 및 '중소기업 정책혁신 12대 과제'(2005.1.17) 등 일련의 대책 수립을 통해 확정·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정책목표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기조를 과거 '보호·육성' 위주에서 '자율·경쟁'으로 전환했습니다. 중소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시간의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유형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Tailored Policy)'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정책목표를 설정·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과거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산업 저변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시장 퇴출을 저

고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습득해 알짜 중소기업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스킴을 할 때 유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을 갖고 있는지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는가 등이다.

마지막으로 동종업계 종사자를 만나 조언을 얻는다. 실제 동종업계 종사자에게 유망 기업을 추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정보가 알짜 중소기업에 가려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취업 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를 묻거나 검색해 보는 것도 좋다.

중소기업에 관한 오해와 진실

Q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도 그럴 것이지?

A 아닙니다.

2006년 말, 중소기업의 사업체수는 302만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99.9%이며, 고용은 1,088만 명으로 전체의 87.5%, 생산은 447조원으로 4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제조업 부가가치의 51.1%를 차지하고, 비농업총생산 GDP의 59.4%를 중소기업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만개 정도의 사업체가 신규 창업되고, 이들 중 새로운 법인기업도 65,016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고용은 247만 명이 늘어난 반면, 대기업 고용은 오히려 130만 명이 줄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스스로가 '제품의 구매자'이면서 동시에 '제품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산업의 전·후방 효과를 과급·상승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 창출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 산업구조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과거의 폐쇄적 대량생산체제에서 벗어나 개방적 전문생산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소중한 기업'인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입니다.

Q 중소기업은 중소제조업 등 3D 업종이지?

A 아닙니다.

(주)대성엔피씨는 1967년 창업하여 36년 동안 금속 인쇄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기업의 목표달성은 종업원의 사기 여하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인식아래 2003년 이래 5일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2002년 연봉대비 평균 10%이상의 급여 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전체적인 급여 수준을 높였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140여명의 직원 중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절반인 70여명에 이르며 2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3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사는 노사협회의를 통해 서로의 애로점 및 의견들을 조율하고 회사와 모든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 창업 이래

36년 동안 무과업의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스틸(주)는 모든 재무 상태를 거짓 없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노사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4년부터 사내 전산망(통합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전임직원의 정보공유, 영업실적 및 비용내역에 대한 전면공개를 하였으며, 2000년 3월에는 코스닥에 등록하여 매분기에 경영실적을 주주에게 공개(전자공시)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현재까지 직제준비수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 분을 제외한 의료비 분기 부담 전액 지원, 매년 40세 이상의 임직원에 대한 종합정밀건강검진 실시, 임직원자질 향상의 일환으로 해외연수 기회확대를 위해 연 88명의 임직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시행, 매년 2~3회 전임직원 및 고객사 음미회초정, 자기개발을 위한 학원수강비 지원, 임직원의 여가활동을 위해 금로리조트회원권을 구입하여 이용료 전액지원 등 지속적인 복지지원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 속에서 중소기업이 구직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주름 잡는 중소기업도 많습니다.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서는 3D 업종의 단순 노동이 아니라 경영전망의 업무 경험이 가능하며, 기업, 30대에 수석부장이 되는 등 빠른 승진과 급진적 보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이 일치하는 곳이

바로 혁신형 중소기업입니다.

Q 정부는 중소기업을 외면한디?

A 아닙니다.

정부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혁신주도형 경제구조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보 전략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부문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더불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2004.7.7) 및 '중소기업 정책혁신 12대 과제'(2005.1.17) 등 일련의 대책 수립을 통해 확정·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정책목표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기조를 과거 '보호·육성' 위주에서 '자율·경쟁'으로 전환했습니다. 중소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시간의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유형별·성장단계별 '맞춤형 정책(Tailored Policy)'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요구와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정책목표를 설정·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과거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산업 저변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시장 퇴출을 저

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식도 직접지원보다는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정보제공'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민간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보 전략을 수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실용성이 상실되었거나 전례 답습식으로 존속해오던 정책을 중소기업 입장에서 재평가하고 과감히 통·폐합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창업초기기업의 법인 유지비용을 감축 추진하고, 창업절차 간소화 및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Q 중소기업 안에서는 자기개발이 없다? 비전이 없다?

A 아닙니다.

대학생 등의 청년층들은 중소기업의 낮은 장래성, 복지혜택 미흡 등을 이유로 취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형 중소기업은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낮은 장래성' 등은 영세하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성급하게 일반화한 편견이나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인력들이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을 목표로 체험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중소기업"이 아

니라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나도 함께 발전해 나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직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나 이공계 졸업생의 취업난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혁신형 중소기업 현장연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 하계방학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2008년 하계에는 전국적으로 65개 대학에서 실시된 바 있습니다. 연수를 마친 대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온다면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연수 전에 중소기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대학생 중 87%가 연수 후에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대 전지전자공학부 3학년 이병수 학생은 "중소기업의 이미지는 열악한 임금, 낮은 복지수준 등이었으나, 연수를 마친 후에는 중소기업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이 대기업 못지않음을 알았고, 다양한 업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능력 발휘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라는 장점을 알고 나서는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로이 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2006년 제조업 중소기업의 1인당 연간 급여 증가율은 4.6%입니다. 반면 제조업 대기업의 연간 급여 증가율은 2.3%입니다. 또한,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수의 93.6%, 연수원 수의 57.6%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기업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만 5천 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업 구성의 각자와 회사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자료제공 - 중소기업청

S그룹 안부럽다! 중소기업에서 꿈의 날개를 펼친다

온미디어 김현주 동문

‘우리회사’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CSI단서함부터 독후감 숙제까지, 1등회사 되기 위해 전직원 힘씁니다”

김현주(신문방송 06졸) 동문은 주식회사 온미디어의 제작국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프로듀서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온미디어에서 만난 김 동문은 인터뷰 당시 자신이 제작하는 ‘폴리카송’의 2화 방송을 하루 앞두고 있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평소에는 압구정에서 촬영하지만 편집 작업 때문에 회사에 들어왔다”고 말한다 그는 인터뷰 내내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를 만난 회사 로비는 카페테리아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다. 곳곳에 안락한 의자와 함께 멋들어진 조형물이 있었고 분위기는 좋은 조명과 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 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만족도는.
= 제작국에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

다. 현재는 온스타일에서 금요일 11시에 방영되는 ‘폴리카송’이라는 리얼리티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압구정에서 네 명의 모델과 연기가자 레스토랑을 오픈하기 위해 좌중우돌하는 이야기다. 임버릇처럼 “할 일 없으면 레스토랑이나 하지”라고 툭 던지는 말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리얼리티프로그램 특성상 대본이 없이 출연자들이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아 힘들다. 올해 초까지는 OCN에서 방영하는 ‘OCN 영화뉴스’를 제작하기도 했다.

우리 회사는 전반적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위기이다. (회사 카페테리아에 설치되어있는 CSI단서함을 가리키며) CSI단서함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좋은 의견에는 최고 1,000만원의 상금도 준다. 특히 사원복지가 전 케이블 채널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한다. 직원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화표도 자주 제공한다. 참, 명절 때는 오리온과자선물세트가 온다. 직원이 많지 않아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작은 것까지도 많은 배려를 해 준다.

- 우리회사를 소개한다면.
= 한 친구는 누구나 선망하는 S모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더라. 평생 그 직장에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대기업에서 승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소기업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현재 제작일을 하고 있어 유투비와 통신비 등을 제공받는다. 회사가 어려워 사라지기는 했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기개발비, 문화생활비도 지원했었다. 그 개로 영화는 자주 보는 편이다. 어느 회사나 야근안하는 회사는 없다. 일은 할당량 만큼 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이기에 직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다. 1등보다 2등이 더 무섭게 공부하지 않나? 회사차원에서 ‘좋은 기업이란?’, ‘좋은 기업의 꿈을 찾아서’와 같은 포럼을 하기도 하고 직원들에게 책 읽고 독후감쓰기 같은 과제도 시킨다.

대기업에서 이슈화되는 ‘비정규직문제’가 우리 회사에도 있지만 대기업과 같이 큰소리가 나지 않는다. 정규직이랑 비정규직의 처우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회사 직원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정규직이 되기 위해 거치는 관문정도로 생각한다.

- 현재의 직장을 선택한 이유.
= 전공을 선택하기 이전부터 영상제작에 관심이 있었고, 영상제작을 하기 위해 신문방송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신문방송학과 출신의 학생들이 보통

방송국에서 편성프로듀서로 일을 하게 되는데 나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영상제작을 하기위해 취업준비를 해왔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고, 창의적인 부분도 겸허히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전에는 ‘대기업’을 바라본다. 하지만 정작 취업을 해보니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를 따질 일이 거의 없다. 그냥 ‘우리 회사는 우리 회사’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특히 ‘우리 회사’는 애사심을 갖게 해준다.

- 학창시절 취업준비과정은.
=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면 보통 언론계나 아나운서로 진출을 지망한다. 하지만 나는 전공을 선택하기 전부터 영상제작에 대해 배우고 싶었다. 그래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면서도 영상제작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방송 제작을 위해 졸업 전 아카데미를 다니며 준비하기도 했다.

또한 신문방송학과 사진 소모임 ‘빛그림’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동아리는 아마 추후적인 생각으로 아마추어적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취업준비는 누구나 하는 일이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운이라고 생각한다.

회사에 지원할 때 토익점수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학점도 그냥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니 학점이 조금 높고 낮다고 입사의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직원을 채용할 때 학점을 보고 이력서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이력서를 짧은 시간 내에 분류하는 기준은 이력서의 창의성이다. 면접도 중요하다. 몇 초만에 자신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짧은 시간 동안의 판단과 순발력은 답변은 짧은 준비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고 생각한다.
- 후배에게 조언 한마디.
= 사명감 없이 회사에 가는 것은 취직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사명감이 없으면 결국 회사에서 오래 견디지 못한다. 어렵게 입사한 회사에 일주일 일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다. 무슨 일이든 끈기 있게 해야 하는데 요즘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빨리 자기 적성을 찾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후배들을 보면 안타깝다.

끈기 못지않게 인적네트워크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야 한다. 선배뿐만 아니라 동기, 후배까지도 말이다. 특히나 내가 일하는 방송계는 인맥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다른 회사에도 인턴십프로그램이 있지만 우리 회사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FMG(Future Media Group)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에서 입사시험을 보는 것처럼 서류전형도 하고 면접도 본다. 합격하게 되면 6개월간 온미디어의 대학생 마케터로 일한다. 채널마다 투입되어 직접 프로그램제작에 참여하기도 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혜택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는 것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고석현 선임기자
dgupress@dongguk.edu

(주)온미디어 **ON MEDIA**

회사설립일 : 2000.06

상시종업원수 : 171 명 / 2007년 12월 기준

자본금(백만원) : 59,049 / 2007년 12월 기준

매출액(백만원) : 86,855 / 2007년 12월 기준

주요사업내용 : 6개 케이블방송 지주회사

계열사 : 오리온그룹

프라임상호저축은행 최경미 동문

최경미(생물·국제통상 07졸) 동문은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 근무하는 3년차 계장이다.

강남구 논현동 프라임저축은행 빌딩 3층에 위치한 경영지원본부는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상사들과 농담을 자연스럽게 주고받기도 했다. 퇴근 후에는 직원들이 다 같이 덩치기로 했다며 “회식자리는 빨리 취하기 위해 폭탄주를 맡아(?)마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만족도는.
= 입사 초에는 인사팀에서 일했는데 부서이동 시 IB팀을 지망해 현재 IB팀에서 일하고 있다. IB(Invest Bank, 투자은행)업무는 2005년 처음 국내에 들어왔는데 고객들이 맡긴 돈을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다.

나는 외부 증권사의 투자를 기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사팀에서는 내부직원들과 접할 기회가 적었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IB팀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협력하는 일이 많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잘 도와주고 알려준다.

공부를 하는 분위기에서 일하고, 회사에서도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직원들이 공부하는 것을 인사과에 반영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모르는 분야가 많으면 스스로 도태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분위기이다. 회사와 업무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120점을 주고 싶다. 아직까지도 회사에게 이바지하는 것보다 배우고 얻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 우리회사를 소개한다면.
= ‘중소기업은 연봉이 적다’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연봉은 대기업 초봉 못지않게 받는다. 다른 회사의 채용홈페이지에는 ‘복리후생’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정말 좋은 회사는 보이지 않는 지원을 많이 한

다.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연수가 많고 자기가 일한만큼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다. 연수와 교육프로그램이 많고, 출장도 잦다. 투자관련 업무 협의자 작년에는 캄보디아에, 올해는 미국과 캐나다에 다녀왔다.

개인적으로는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끼리 친근한 분위기가 좋다. 금융계열에서 근무하다 보니 1원 한 장도 철저히 계산해야 한다.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회사의 손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직원들이 많지 않아 친근한 분위기로 서로 의지하며 일한다.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면 지치기 마련인데 저녁 무렵 사다리타기를 해서 간식 내기도 하고 서로를 잘 챙겨준다. 1월 1일에는 전 직원이 해맞이를 가기도 했고, 지난 10월에는 직원협의회에서 워크숍을 다녀오기도 했다.

- 현재의 직장을 선택한 이유.
= 어떤 책에서 봤는데 미래가 있는 세 가지 분야에 IT, 금융, 유통을 꼽았다. 학교 재학 중에는 유통계열 기업에 입사지원했고, 실제로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합격통보를 받기도 했다. 어느 곳으로 취업을 할 지 고민하던 중 모 은행에 다니는 선배로부터 금융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금융에 대한 지식이 아주 없는 상태에서 이 분야에 대해 배우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금융계의 수많은 회사 중에서도 우리 회사를 선택하게 된 것은 우리 회사의 비전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위치에서 충실하게 한다면 어느 위치에서나 인정받고 능력에 합당한 연봉과 지원을 해주는 건 당연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같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은 단지 대기업과 다른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일 뿐 대기업과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에 다니면서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위축되었던 적은 한번도 없다. 대기업과 업무협조가 많은데

그들보다 일을 못하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학창시절 취업준비과정은.
= 누구보다도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자부한다. 대학에 입학한 후 3년간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달에 과외를 4개씩 한 적도 있다. 마트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서빙도 해봤다. 더불어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하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YLC(Young Leaders' Club)의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다. 일찍 시작한 사회생활 덕분에 다른 신입사원들 보다 비교적 사람을 대하는 것이 수월하고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이 적었던 것 같다.

어학연수도 다녀왔다. 3학년을 마치고 호주로 건너가 2개월간 영어공부를 했고, 이후 현지 리조트에서 인턴십을 했다. 이듬해 복학 후에는 토익시험을 비롯한 취업준비에만 매진했다. 졸업을 앞두고는 ‘평균평점 4.1, 토익 860점, TESOL자격증 보유’라는 이력서로 보통동안 50군데나 되는 기업의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취업지원센터에서 실시 하는 취업캠프, 면접클리닉, 이력서클리닉, 초청강연회 등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취업지원센터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입사했다.

HRDP취업캠프 1기 수료생인데 처음 시행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적성검사부터 시작해 인사담당자 초청강연, 모의면접 등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다. 3박 4일간의 합숙기간 중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기억이 난다. 이밖에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목표했던 회사에 취업한 선배를 소개받아 직접 찾아간 적도 있다.

- 후배에게 조언 한마디.
= 대학에 다닐 때에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팀에서 근무할 때

중소기업 연봉이 적다는 편견을 버려라!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다. ‘100명의 여자 친구를 사귀는 지원자’와 ‘학점 4.0을 받은 지원자’ 중 한명을 뽑아야 한다면 ‘100명의 여자 친구를 사귀는 지원자’를 뽑을 정도로 경험을 중시한다. 그렇다고 학생의 의무인 공부를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니다. 회사는 학교생활과 다르게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제안한 사람으로 회사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중소기업이라고 괘시하거나 필라보식의 지원은 절대 금물이다. 어느 회사에 지원하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후배들이 책상에서만 취업 준비하는 것이 안타깝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동기부여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철저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다면 누가

취업을 생각했는가? 취업성공기와 같은 책을 읽으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목표와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석현 선임기자
dgupress@dongguk.edu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분야가 다를뿐, 능력만큼 확실한 보상은 이뤄집니다”

(주)프라임저축은행 **Prime**

회사설립일 : 1972.10

상시종업원수 : 113 명 / 2008년 6월 기준

자본금(억원) : 11,430 / 2008년 6월 기준

주요사업내용 : 금융업/저축은행

계열사 : 프라임그룹

2008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수상자 이정복·조승표 군

이제는 손가락으로 컴퓨터를 제어한다

C2SFI 기술 발표, 손가락만으로 마우스 기능 수행 ... 관련 업계 주목



▲ C2SFI를 시연하고 있는 조승표 군



▲ C2SFI를 개발한 이정복·조승표 군



▲ 마우스 기능을 하는 손 인터페이스의 모습

‘전자 장갑을 착용하고 허공에 떠있는 영상자료를 손으로 끌어당겨 지휘를 하듯 컴퓨터 작업을 한다’

영화 ‘마이네리티 리포트’에서 주인공 톰 크루즈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두 손만을 움직여 컴퓨터 작업을 한다. 그러나 이 ‘제스처 인터페이스’ 기술은 영화 속에서만 등장할 법한 기술로 여겨졌다. 이 영화 장면에 매료된 한 관객은, 제스처 인터페이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손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컴퓨터 제어 시스템(C2SFI: Computer Control System By Finger Interface 이하 C2SFI)’을 만들어냈다. 그 주인공은 우리 대학의 이정복·조승표(컴공4) 군이다. 그들은 ‘2008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한국공학 교육인증 원장상’을 수상해 관련 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2008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는 ‘공과대학의 창의적 공학교육제도 정착’과 ‘공과대학 졸업생들의 창의적 설계능력 배양’이라는 취지로 개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재)한국 산업기술재단의 주최로 열

린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60여개 대학에서 178개의 과제가 출품됐다. 수많은 작품 중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받은 C2SFI는 우리학교 이정복·조승표 군의 합동 출품작이다. ‘스파르타’라는 팀 이름으로 2008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많은 팀과의 경쟁을 뚫고 수상한 이정복·조승표 군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 기술은 2008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의 심사위원들로부터 공상과학영화에서만 등장할법한 창의성있는 작품이며, 학부생이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 참가 전 더욱더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스파르타’라는 팀 이름을 지은 그들은 “이름에 걸맞게 약 3개월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고생을 하며, 노력 끝에 C2SFI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첫 대회 출전에 수상의 영예를 안은 소감을 밝혔다.

C2SFI는 키보드와 마우스 같은 별도의 입력장치 없이 사용자의 손동작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 기술은 버튼 클릭만으로 모니터와 CD-ROM을 제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컴퓨터를 재부팅, 종료, 로그오프가 가능하다. C2SFI는 손가락을 이용하여 마우스 제어와 ‘천지인 키보드’라는 키보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 중 마우스 제어의 원리에 대해 조승표 군은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원을 그려 손과 만나는 부분의 개수에 따라 포인터 이동, 좌우버튼 클릭, 스크롤과 같은 마우스 제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손가락으로 숫자 2와 3을 나타내면 지정된 프로그램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Quick Start’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천지인 키보드’는 일반키보드와 핸드폰 문자입력 방식을 모티브하여 개발된 것으로, 이정복 군은 “WWW만 클릭하면 ‘http://www’로 입력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용 시 편리함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복·조승표 군은 “인터넷과 해외 논문도 큰 도움이 됐지만 지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없었

다”며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마이네리티 리포트에서 등장하는 제스처 인터페이스 기술은 해외 연구자들에 의해서 거의 근접하게 구현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해외 연구진들의 논문을 참고하여 학부생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정복 군은 “인터페이스라는 분야는 흥미롭지만 학문적으로 어려워 ‘괴짜’들만이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 인터페이스에 도전한다면 한계는 없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조승표 군은 “이들 제기로 우리나라 주요대학 및 많은 해외 대학들도 참여하는 Capstone 대회에도 나갈 예정이다”며 차후 계획을 밝혔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둔 이정복·조승표 군은 현재 삼성전자에 취업이 된 상태이다. 그들은 졸업한 후에도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비롯해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을 법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 것이라는 끝없는 ‘도전’을 약속했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히지리 잇펜스님과 그림 전기 (一遍聖人と聖繪)

김호성 교수의 비판적 책 읽기



히지리 잇펜스님과 그림 전기 (一遍聖人と聖繪)
지은이 : 다카노 오사무(高野修)
펴낸곳 : 이오비(岩田)사원

스님을 생각하면 행복해 지는 그런 스님이 있다. 일본 중세의 잇펜(一遍, 1239~1289)스님 역시 나를 행복케 하는 분 중의 하나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감히 교만을 떠는 것도 내가 잇펜스님을 조금이나마 알고 좋아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그래, 그렇게 말해 버리고 말자. “잇펜스님은 원효스님의 후신(後身)이다!” 원효스님이 나중에 잇펜스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 말에 내가 책이 읽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물증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그런 생각이 깊어진다.

원효스님은 과거 이후에 방랑곡곡을 떠다니면서, 당시의 민중들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전 하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 가끔 약기를 두드리면서 춤도 추었다.

잇펜스님 역시 꼭 그랬다. 서른 다섯, 마음에 안심(安心)을 얻은 이후 일본 열도를 걸고 또 걸었다. 이를 ‘유행(遊行)’이라 말한다. 겨울에도 휘발아치는 북풍한설을 맞았고, 한데 잠을 잤다. 보통 스님들은 집을 없지 않지만 절은 있지 않던가. 그러나, 잇펜스님은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었다. 돌아가실 때까지 16년동안 무소유였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도 따라 다녔다. 가끔 잇펜스님은 그들과 함께 춤추며 염불했다. 염불하며 춤쳤다. “나무아미타불~”

일본의 원효스님으로 추앙받는 히지리 잇펜스님, 저자거리 속 성자로 진정한 종교인의 모습 구현

당시의 어떤 큰스님들보다 일찍 이승에서의 삶을 마감한 뒤, 10년이 지나 제자 쇼카이(聖戒, 1261~1323)스님은 화가 엔이(圓伊)를 데리고 스님의 발자취를 되짚는다. 이렇게 하여 엔이가 그림으로 그린 스님의 전기가 완성된다. ‘잇펜히지리에(一遍聖繪)’가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히지리’라는 말이 우리의 저항을 부를지도 모른다. 원효스님과 같이 저자거리로 내려와서 민중들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스님들이, 민중들 입장에서 여간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분을 ‘저자거리의 성자(市聖, 이치 히지리)’라 불렀다. 줄여서 ‘히지리’라 부른다. 그러나, ‘잇펜 히지리에’는 잇펜 히지리의 그림 전기라는 뜻이 된다. ‘성인’이라 해서 그런 뜻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도 이런 히지리들이 적지 않았으니, ‘삼국유사’만 해도 원효·대안·혜수·혜공·사복 등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분을 총칭하는 말이 없었으니, 일본의 경우에는 ‘히지리’라는 말로 불렀던 차이가 있다.

그럼 왜 우리는 히지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일까?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인의 모습, 우리가 되찾아야 할 참된 출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도 꿈이 있다.

언젠가는 ‘잇펜 히지리에’를 온전히 다 보고 다 읽고 싶은 꿈, 스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 걷고 싶은 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스님을 소개하고 싶은 꿈 말이다. 그런 행복한 꿈을 나는 꾸고 있다. 그 꿈이 번여도 없는 이 책을 굳이 소개하라 명령하였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글이 잇펜스님을 소개하는 최초의 글일 터이지만, 그 꿈을 향하여 나는 조금씩 정진하고 있다.



26회 에코포럼에서 발제 중인 김지하 시인

에코포럼 - 자살급등,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김지하 시인 “종교 통한 사색이 자살 예방책”

몇 년 사이에 늘어난 연예인들의 자살이 미디어를 통해 자주 거론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2007년 통계청 보고에 의하면 매일 34명의 우리 국민이 목숨을 끊고 있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우리나라가 선정됐다.

이러한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1일 생태지향사회와 생명의 의미, ‘OECD 자살률 1위 국가인 한국을 중심

으로’ 라는 주제로 에코 포럼이 열렸다. 김지하 시인, 한국자살예방협회 회장인 홍강의 교수, 실천신학대학원 정재영 교수, 쌍계사 승가대학 교수인 월호 스님이 참석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김지하 시인은 독재 정치 시절 감옥살이를 했을 당시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경험을 제시하며, 이를 ‘회암경’의 정신으로 마음의 대화를 하는 것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홍강의 교수는 지난 10년간 자살률

이 3배 정도 급증한 사실을 지적하고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강조했다. 실천신학대학의 정재영 교수와 쌍계사 승가대학 교수인 월호 스님은 자살 방지에 있어 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은 종교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며 삶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을 제시하기 때문에 자살을 예방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말로 마무리됐다. 이번 에코포럼은 자살률이 급증하는 한국 사회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공직적성시험 대비 계절학기 강좌개설 안내

문과대학 주관 공직(법학, 치의학)적성시험 대비 겨울계절학기 특별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설강좌(총 2강좌, 강좌별 2학점)**
가. 비판적사고와 논술 연습(Argumentative Essay Practice) - 논술/기초논리학영역 : 김명식 교수(동국대 박사수료, 대한교과서 논술팀 강사, 동국대 및 경기대 논리논술 강의, 논술지도사 제정위원 등)
나. 논증적 사고특강(Special Lecture for Argumentative Thinking) - 언어이해영역 : 홍성훈교수(동국대 박사수료, 비판적사고와 논술연구회 창립회원, 동국대 및 경기대 논리논술 강의, 독서지도사 전문강사, 출제 및 심사위원, 논술지도사 제정위원 등)
- 개설기간 : 2008.12.22(월)~2009.01.16(금)** 겨울계절학기 기간
* 겨울계절학기 정규강좌로 과목당 2학점씩 인정
- 수업요일 :** 주 4일 수업(월, 화, 목, 금), 15일강
- 수업시간 및 담당교수 :**

구분	오전	오후
수업시간	10:00~12:00	13:00~15:00
담당강좌	비판적사고와 논술연습 (DEV9005)	논증적 사고특강 (DEV9001)
담당교수	김명식교수	홍성훈교수

- 수강자격 :** 제한 없음
- 수강료 :** 1학점당 85,000원
- 2차 수강신청**
가. 기간 : 2008.11.24(월) - 12.18(목)
나. 방법 : 재학생 및 일반인 모두 문과대학 학사운영실(02-2260-3756, 명진관 1층)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
- 기타사항**
가. 성적평가 : A~F 등급평가
나. 경주캠퍼스 및 교류대학(건국대, 경희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한국외국어대) 학생도 해당 대학 학칙에 따라 학점인정

* 세부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문과대학 학사운영실(02-2260-3756, 이메일 gilhm@dongguk.edu)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과대학 학사운영실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제7기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모집

- 과정개요**
본 과정은 늘어나는 한국어교원의 수요를 충족하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한국어교육학, 한국문화의 이론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한국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을 목표로 한다.
본 과정 이수 후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국어 기본법에 의거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전원일정**
○ 원서 접수: 2008. 12. 1 - 12. 10
○ 합격자 발표: 2008. 12. 11.(목)(인터넷 및 개별통지)
○ 등록 기간: 2008. 12. 12(금) ~ 12. 17(수)
○ 수업 기간: 2008. 12. 22(월) ~ 2009. 1. 23(금)(09:30 - 17:00, 총 122시간)
- 등록 방법**
○ 전월료: 3만원(원서 접수 시)
○ 등록금: 100만원(교재비 포함)
* 본교 졸업 동문, 외국인, 전·현직 한국어 강사: 등록금 20% 할인(증명서 제출)
* 본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수료생: 등록금 40% 할인(재학 증명서 제출)
○ 접수 방법
- 전자우편, 방문·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해화관 1층)
○ 문의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교원양성과정 담당자
전자메일 kit@dongguk.edu 전화 (02)2260-3472
- 등록 자격**
○ 전문대졸 이상자 또는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에서 강사로 전·현직자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 제출서류**
○ 본인 소정 지원서(지원서를 낼 때 전월료를 내야 함)
○ 최종학교 졸업(재학) 증명서, 재직(경력) 증명서(해당자)

* 본 과정 이수자에게는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성적 우수자에게 본교 한국어교육센터장 명의의 상장 및 부상 수여
* 본인 강사 채용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및 카페를 통한 강사 모집 광고 제공
* 본 과정 이수자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입학 면접 시 가산점 부여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陳英明教授(中國上海交通大學) 招請講演 中國詩書畫와 中國文化

일시: 2008년 11월 25일 (화) 오후 3시 50분 - 5시 30분
장소: 다함관 세미나실
강연자: 陳英明教授(上海交通大學)
사회: 朴永煥教授
주최: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중어중문학과
후원: 동국대학교 인문학특성화사업단
연락처: 2260-3836/ 2260-8711/ 011-9999-9833

2008년 불교학과 동문 송년회 및 정기총회

동국대학교 건학 102주년과 불교학과 창설 102주년을 맞아 불교학과 동문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자 합니다. 두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08년 12월 8일 (월) 오후 6시
- 장소: 소피텔 엠베서더호텔 오키드롬 (19층)
- 참가회비: 5만원
- 연락처: 02-2260-3835 (동국대학교 교수회관 120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동문회

달하나천강에

역사가 뿔났다

역사학과와 역사교육계가 단단히 뿔났다. 얼마 전 TV드라마에서 엄마가 뿔났던 것 이상이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 대부분의 염원을 무시하면서 '고등학교 검정정 한 국근현대사 교과서' (교과서)에 대해 수정 권고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었지만, 이는 교과서 수정권고의 절차와 의도를 올바르게 알지 못한 채 나온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현실의 이해관계에 굽뜨기로 소문난 역사학과와 역사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이에 반대하는 이례적인 행동에 나섰겠는가.

정치적 개입받은 역사교과서

이번 교과부의 조치에는 그야말로 교과서 발행주체의 책임을 망각하고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수정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교과부가 문제를 삼은 교과서는 이미 2002년 검인정을 통과해서 지금까지 6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어 왔다. 그동안 몇 차례

문제시되었을 때에도 교과부는 검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거듭 확인해 준 바가 있다. 매년 교과서 집필자들도 각처에서 제기한 이의를 받아들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 다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해왔다.

역사교육, 정치중립성 상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정치권에서 교과서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교과부는 종전의 태도를 반복하고 말았다. 이는 역사연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할 교과부가 스스로 이를 짓밟은 것이다.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지도 모른다.

교과부의 교과서 수정 요구는 역사와 무관하거나 전문성도 없는 단체의 주장을 근거로 삼고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을 주장하는 일부 단체의 입장은 차마 납득하기 어려운 한국사정체론과 식민지근대화론,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과 내용의 공정성을 요구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한 번도 교과서 집필자들이 물론 역사학과와 교사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정을 추진해왔다.

이점에 문제시되자 교과부는 부랴부랴 검정규정도 없는 불법적 방식으로 수정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국사교과서협의회의 협의회를 급조해서 검토를 의뢰했다가 기대했던 답변을 듣지 못하자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만들어 10여일 만에 수정 권고안을 졸속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 결과 교과부가 수정을 권고한 50여개의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이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문장 첨삭지도의 수준인데다 검인정 통과 이후 복합의 상황변화를 기술하라는 요구도 적지 않다. 교과부나 정치권의 주장대로 이념의 편향성을 명백히 입증해줄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현행 교과서 검인정제도는 학계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며, 다양한 견해의 교과서에 대한 교사와 학생



한철호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들의 선택권·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부의 수정 시도는 검인정제도를 사실상 부정하고 내용을 획일적으로 서술하는 국정제도로 회귀하려는 조짐이자 역사교육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판단된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

이에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율성과 검인정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키려는 교과부의 수정 권고를 거부하였고, 국내외의 역사연구자와 역사교사들은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편향 시비에 휘말린 교과서를 직권 수정하거나 발행을 금지시키라는 의견이 수그러들지 않고, 심지어 서울시교육감이 교장들에게 특정 교과서의 선택을 거부하라고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역사교육은 정권과 관계없이 백년대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역사학과와 역사교육계를 더 이상 뿔나게 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보리수

주리반타카의 수행

해주스님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부처님 제자로서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된 분 중에 비를 외우는(誦經) 비구가 있었다. 법명은 주리반타카 [朱利般特迦]인데 하도 아둔하여, 부처님께서 그에게 비로 마당을 쓸면서 '비[誦]와 '쓸다[掃]'를 외우도록 하셨다. 그런데 '비[誦]'를 외우면 '쓸다[掃]'를 잊어버리고 '쓸다'를 기억하면 '비'를 잊어버리곤 하였다. 그러나 주리반타카는 열심히 며칠을 반복하여 둘 다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지혜의 비로 결박의 더러움을 쓸어 없애게 하신 부처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정진하게 되어 '비를외운비구[誦經比丘]'라는 별명을 얻었던 것이다.

'법구비유경'에는 이 주리반타카가 아라한이 된 과정이 실려져 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 계시 때 주리반타카가 새로 비구가 되었는데 아둔해서 오백 아라한이 날마다 가르쳐 주어도 삼년동안 온전한 계승 하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전국 모든 이들이 그의 어리석고 아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소문이 자자한 주리반타카를 연민히 여기어 아래의 계승을 가르쳐 주셨다.

"입을 지키고 생각을 거두들이며 몸으로 범하지 말라. 이와 같이 수행하는 이는 (깨달아서) 세간을 건질 수 있으리라(守口攝意身莫犯 如是行者

得度世)" 부처님께서서는 몸으로 짓는 세가지 행위(살생·도둑질·음행), 입으로 짓는 네가지 행위(거짓말·이간하는 말·꾸미는 말·욕),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세가지 행위(욕심·화냄·어리석음)가 일어나는 까닭을 말씀해주시고, 이러한 몸과 말과 생각(身口意)의 삼업(三業)이 일어나는 것과 사라지는 것을 잘 관찰하도록 가르치셨다.

주리반타카는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에 깊이 감동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뜻을 새겨서 바로 아라한도를 얻게 되었다. 부처님은 이처럼 극히 어리석은 자에게도 삼업을 잘 다스려 도를 이루게 해 주셨던 것이다.

지난주에 전 사찰에서 겨울철 안거(安居)를 시작하는 결계(結制)를 하겠다. 참선 도량인 선원뿐 아니라 강원과 출원에서도 결계를 하였고 내지 도심에서 포교하는 사찰에서도 결계를 맞아 특별기도 정진에 들어갔다. 석 달 기간을 정해서 바깥출입을 삼가고 가평정진 내지 용맹정진에 들어간 것이다.

세상돋보기

태러가 된 삶의 터전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목적의 뉴타운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 2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은 10%. 투기로 인해 땅값은 물론 집값도 올라가 돈 없는 서민들은 오래동안 살아온 이 곳을 떠나야하는 현실이다. 뉴타운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 후석동 뉴타운 재개발 지구에는 주인 없는 빈집만이 쓸쓸하게 남을 뿐이다.

김윤수 기자 yshero21@dongguk.edu



동문칼럼

최선을 다해 반성하기

처음 소설을 쓸 때, 나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다짐을 했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 그의 곁에 최후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의 곁가에 희망을 속삭이고 그의 차가운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소설이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을 위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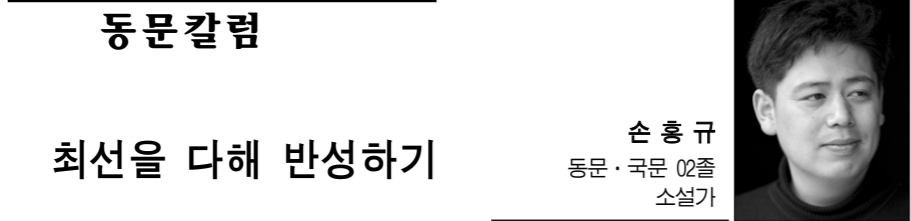
우울한 날들의 연속이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삶을 접고 있는 시대다. 물론 그 가운데 유독 시선을 사로잡는 건 유명인들의 자살이다. 생전의 그들에게 드리워졌던 빛의 장막이 걷히면서 우리는 인간 그 자체의 고독을 엿보게 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어디 유명인뿐이라. 파산한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미래를 저당잡힌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던 이들이 아무런 기약도 없이 훌쩍 떠나고 있지 않은가. 뒤늦게 우리는 그들의 우울증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음을,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했음을 자책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의 정체를 숙고해 보기도 한다.

우울증이란 우울한 상태가 계속된다는 의미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의 지속이라고

도 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어느 한 순간에 잃어버린 게 아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끈질기게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어느 날 우리는 완벽하게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소설가로서 내가 매번 맞닥뜨리는 현실은 무기력한 나 자신이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회의가 생긴다. 결국 권고하다 여기며 여태 써왔던 나의 문장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디는 이유는 소설 또한 반성의 한 형식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호러스 월폴은 '세상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극이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비극'이라고 했다. 우리가 세상을 가소롭다고 생각하면 서글프다고 느끼는 어차피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생각하고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반성의 시작이다. 내 안의 외로움을 꺼내 보면 다른 이들의 그것과 무척 닮아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고독한 인간임을 인정한다면, 세계가 희극이든 비극이든 무슨 상관이라. 최선을 다해 반성하기, 그건 소설가의 각오만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낸 우리의 자세도 그러했으리라.



손홍규 동문·국문 02출 소설가

동대신문을 읽고

정치적 일상적 가치

흔히들 '정치'하면 뭔가 어렵고 고차원적인 걸 생각하지만, 정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행위이다. 쉬운 예로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갈 때, 어느 식당에 가서 어떤 음식을 먹지를 결정하는 과정도 넓게 봤을 때는 의사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정지란 우리 일상과 꽤 가까운 개념이다.

11월 10일자 동대신문에는 학생회 선거철을 맞아 학생회에 여러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해 지적하는 특집기사가 실렸다. 학생의 무관심을 탓하기보다는 현재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좀 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현재 학생들의 의식과 세태를 생각한다면 아직은 학생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은가 싶다.

주변을 둘러봐도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참여해 보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뭘 한다고 달라지겠어?'라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정치적 행위와 일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물론 일상 속에 모두 정치적 의미를 담을 수는 없다.

내가 쓰는 휴대전화 안에는 하루에 백 원도 받지 못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한 어린이의 피와 땀이 섞여 있는 것이고, 내



조준우 신문방송학과 2학년

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마시는 커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가를 하루하루 생각하다보면 골치가 아파질 것이다. 일상과 정치적 행위를 밀접하게 관련지어 생각하라는 것은, 적어도 내가 어떠한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간접적으로나마 나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다. 나는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든가 한 표조차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 우리는 이미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회의 역할을 탓하기 이전에 그들을 지지해야 할 우리를 생각해 보자. 단지 취직만을 위해 체세술과 재테크에 관한 책을 읽고, 교양 및 사상은 리포트용으로만 읽으며 정치적 행위는 일상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더 정치와 일상을 가깝게 놓을 때, 조금 더 나은 학생회와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비로 잡습니다)

동대신문 제1467호(11월 10일자) 7면 '연애인과 대학' 제하의 '메리 칼럼' 중 '연애인 출신 학생들의 대다수는 수업참여가 저조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달라 비로 잡습니다. 연극학과 관계자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제1회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 참가대상: 공과대학 재학생(공학인증 대상 3, 4학년은 모두참가)
제출기간 및 제출처: 2008.11.24(월) ~ 11.28(금) 오후 5시까지
제출분야: 논문 및 논문 초록, 학술자료 및 각종 보고서, 단행본
원본 기준: A4 용지 1매 (25줄 기준) (용지여백: 좌90mm 상하30mm) 글씨체
심사일정: 1차 심사(학과): 2008.12.1(월) ~ 12.5(금)
포상: (1) 대상(1명): 장학금 100만원 (2) 금상(1명): 장학금 60만원 (3) 은상(1명): 장학금 30만원 (4) 동상(4명): 장학금 15만원 (총 60만원)

번역서비스안내

동국대학교 부속 연구기관 '번역학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영·한 및 한·영 번역서비스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Table with 2 columns: Service type (번역분야) and Description (내용 및 논문 초록, 학술자료 및 각종 보고서, 단행본)

Table with 3 columns: Original language (원본 기준), Price (40,000원 / 50,000원 / 30,000원), and Unit (비율제 11, 비율제 10)

전화(교내): 2260-8657
e-mail: trans@dongguk.edu
본 연구소는 연구소 윤리규정 제 11조 비밀 유지 규정에 의거하여 의뢰내용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유지합니다.

동국대학교번역학연구소

"와~ 50만원에 영어캠프를???" "선착순 60명 한정!!!"

English Speech & Writing Clinic advertisement including schedule, location, and contact info. Location: 2260-3468 / 3470 / clinic@dongguk.edu

금주의 식단

Table with 2 columns: Date (월) and Menu (사골우거지탕, 닭곰탕, 어묵김치찌개, 김치찌개, 갈비탕, 마파두부)

상록원

Table with 2 columns: Date (월) and Menu (갈비경단, 닭곰탕, 닭도리탕, 삼척김치찌개, 갈비탕, 마파두부)

아리수

Table with 2 columns: Date (월) and Menu (참치김치찜, 닭볶음탕, 닭갈비, 낙지찜, 부대찌개)

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논단

대학정보공시제의 역기능과 보완점

대학교육에 관한 국민들의 알권리와 용이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대학정보공시제가 다음달 12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전국 185개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과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총 1,420개 고등교육기관들이 그 대상이 된다. 이들 대학들은 매년 1회씩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대학 홈페이지 또는 대학정보공시 포털에 해당 대학의 학생, 교원, 교육여건, 학교운영, 연구에·결산 등 모두 13개 항목 56개의 대학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대학정보공시제의 목적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및 학교선택에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은 우수 고용 인력의 발굴 및 채용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합리적·과학적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고, 당사자인 대학은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교육성공에 대한 책무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한다.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그리고 일본 등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정보공시제가 향후 국내대학들에서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학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대학정보공시제'가 정부의 기대처럼 약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독이 될 것인가?

학생과 학부모, 기업과 정부의 정보수

요자의 측면에서 보면 '대학정보공시제'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졸업생 취업률, 교원 현황 및 연구실적 등이 객관적 데이터로 공개될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의사결정에 요긴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서열화의 역기능 우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대학외부 사람이나 기관에게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정보공시제가 과연 대학내부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점에 있어 필자는 불행하게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가 조심스럽다. 이 제도가 지난 몇 가지 치명적일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부작용이 대학별 서열화가 될 것이다. 대학정보공시로 인해 소위 '잘나가는 대학'들의 입장과 그렇지 못한 대학들 간에 부익부 빈익빈의 극명한 서열화문제는 교세가 약하거나 지방소재 상당수의 대학들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경쟁에서 뒤처지는 대학들을 자연스럽게 추려 내려는 표면화 되지 않은 정책적 의도가 있다면 필자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겠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서열화의 문제는 단순히 한 대학과 또 다른 대학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같은 대학 내에 존재하는 단과대학들 간에, 그리고 서로 다른 학과

들 간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단언한다.

지난해 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취업률의 공시'가 교육관련 정보공개내용 중 가장 관심사로 나타났다. 누구나 쉽게 예상 할 수 있었던 결과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인문학과 기초학문들이 더욱 외면당하게 될 것이고, 대학간 학문분야 간 선의의 경쟁 대신에 열악한 여건을 지닌 대학과 학과들을 공개적인 낙인을 찍어놓는 비교육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우려는 대학정보공시제가 자칫 대학 교육을 취업위주의 교육으로 전락시킬 우려도 낳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될 내용에만 치중하고 공시항목이 아닌 기타 교육활동들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육적 기능을 수량적 측정이나 가시적 평가지표만으로는 보기에는 한계를 지닌다는 문제도 있다.

정보 공시제가 요구하고 있는 50여개의 함축된 지표들 너머에 존재하는 보다 본질적인 대학교육의 가치들을 양적인 정보로 가공개 제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번 정부가 내놓은 대학정보공시제의 부정적인 면만을 너무 부각시켜 비난하거나 폄하할 필요는 없다. 대다수의 국가정책이 일정부분 장점과 단점의 양면성을 동시에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되는 대학정보공시제의 부작용을



오성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우선은 정부가 판을 짜놓은 정보공시제 항목과 공시내용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질적인 내용들에 관해 대학들 스스로가 기술할 수 있는 특성화 내지는 자구노력의 내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로인한 변화의 조짐과 효과가 언제쯤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대학 정보수요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별도 항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각종 정보들이 대학교육수요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확실시라도 있을 대학들의 의도된 허위 자료에 대한 점검체제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정보공시제가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에게 대학이 지닌 현상적인 사실(fact)들을 서비스 차원에서 공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자칫 대학정보공시제가 성과중심의 대학 간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적 보상 체제의 학교교육,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업주의 이데올로기, 단순한 기계적 해결만을 강요하는 테크놀로지의 무비판적 교육, 그리고 집단 간의 차이만을 부각시키는 분리주의 교육이 오늘날 교육을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교육의 종말'(The End of Education)의 저자 Neil Postman의 지적이다.

사설

학생자치의 꽃을 피우자

총학생회를 비롯한 중앙기구 및 단과대학 학생회선거가 한창이다. 이번 학생회선거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작년과 올해 두 번의 총학생회 구성이 실패함에 따라 한 해 동안 우리대학은 총학생회가 부재했고 이로 인해 한 해 동안 우리대학 학생회는 방향을 잃고 표류해야만 했다.

대학은 학교 당국, 재단, 교수, 학생, 직원 등 제각기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학문공동체이다. 이때문에 대학은 작은 사회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학 또한 각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로가 소통하고 갈등하고 협조할 때 대학이라는 유기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모두 각각의 역할이 있다. 학내구성원들의 힘의 균형이 지나치게 기울면 공동체는 활력을 잃는다. 학생회 구성 실패의 책임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그러나 이 같은 중요성에도 아직 유권자인 학생들의 관심은 저조해 보인다. 팔정도에서 지난 20일 열린 총학생회 후보자 합동유세현장에는 선거운동본부 관계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였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잔치였다. 7,80년대 민해광장이나 팔정도를 가득 메우고 진행됐던 합동유세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추운 날씨가 학생들의 관심을 온통 빼앗아 간 것 또한 원인이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의 정견이나 지지유세 등을 통해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합동유세가 이 같이 소수의 잔치로 끝난 것은 학생사회 스스로 반성해 봐야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지는 교육방송국과 함께 '제 41대총학생회 임후보자 좌담회'를 개최했다. 수업 등으로 유세를 볼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후보들간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유세는 초라했지만, 아직까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선관위의 톨미팅이나 좌담회를 통해 정정당당한 선거를 다짐하며 총학생회 재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1년 만에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다. 책임있는 투표권 행사가 필요하다.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으로 인한 결과는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감내 해야 하는 책임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학생자치가 활력을 되찾고 학생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만평

정명근 gmg@naver.com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오영교, 편집인 윤재웅, 편집장 정동훈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메아리

良藥苦於口 利於病 (양약고어구 이어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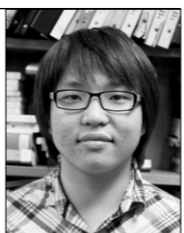
▲良藥苦於口 利於病 (양약고어구 이어병) 忠言逆於耳 利於行(충언역어이 이어행)이란 말이 있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실려 있는 글이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고하는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실에 이롭다는 뜻이다. '은(殷)나라 탕왕(湯王)은 곧은 말을 하는 충신이 있었기 때문에 번창했고, 하(夏)나라의 걸왕(桀王)과 은(殷)나라의 주왕(紂王)은 무조건 따르는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했다. 임금에게 다루는 신하가 없고, 아버지에게 다루는 아들이 없고, 형에게 다루는 동생이 없고, 선비에게 다루는 친구가 없

다면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미네르바는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화를 정확히 예견한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그는 쉬운 경제이론과 통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해 정부의 잘못된 경제 예측과 처방,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의 글은 수만 건의 조회를 기록하고, 게시판이나 블로그에 삼시간에 퍼지면서 경제 관련 토론을 위한 '필독 항목'으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미네르바 신드롬' '미네르바 효과'라는 말까지 퍼돌고 있다.

▲미네르바의 경제 정책 비판이 계속되자 지난 3일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환 법무부 장관에게 "미네르바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와 주장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다"며 주장하자 김 장관이 "그 내용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미네르바는 다음 아고라에 올린 '한국을 지운다'라는 글을 통해 잠시동안 필질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네르바는 신동아에 기고한 글을 통해 코스피 지수와 부동산 반토막을 예상하며 다시금 모습을 드러냈다.

▲미네르바는 우리경제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계속해 왔다. 그리고 그의 직언과 전망들은 누리꾼들에게 광범위한 공감을 얻었고 경제전문가들조차 그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또 다시 '입막기'였다. 비록 그의 발언들이 부정적 전망일지라도 그것이 정확한 근거를 가진 의견이라고 판단된다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네르바의 직언들은 당장은 쓴 약일지 모르지만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양약고어구의 고사에서도처럼 하나라 걸왕과 은나라 주왕의 전철을 밟으려 하는가.



정동훈 편집장 gfd1226@dongguk.edu

12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다매체시대에 영화를 감상하고 그 작품과 관련 텍스트를 비교 토론함으로써 영상문학의 이해를 높여 학생들의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2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1. 영외강사토론 프로그램이란 : 한 가지 테마를 정해 관련 도서들을 읽은 후 영화나 DVD를 개 별관람하고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2. 일 시 : 12월3일(수) 오후2시 ~ 4시
3. 장 소 : 중앙도서관 인문과학실(지하2층) 세미나실
4. 진 행 : 문과대학 영어영문학부 강민건 강사
5. 선정영화 : 논문 자들의 도시 / 페르난도 메이렐레스 감독 2008 년작
6. 관련도서 : 논문 자들의 도시 / 주재 사라마구 지음, 해냄 199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주재 사라마구의 대표작으로 논문 자들을 가둔 수용소의 이름없는 도시를 배경으로 인간성의 근원적인 본질에서 가치와 존재, 현대 문명, 인간 사회를 조직화한 정치 권력 구조 비판 등을 표현했다. 권력과 폭력에 둘러싸여 무력하기 짝이 없는 한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은유인 백색 실명 상태에 빠진 논문 자들을 통해 현대 사회의 인간됨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인간성에 대한 긍정을 놓치지 않고 있다.
7. 정 원 : 12명
8. 신청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영화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9. 유의사항 : * 신청자는 관련 도서를 필히 읽어야 하며, 영화는 개별관람 후 입장권을 토론회 당일 제출해야 합니다. * 영화감상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10. 기타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12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하는 물론 독서의를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2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1.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독서토론을 원하는 도서를 선정하여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2. 일 정 일 시 : 12월4일(목) 오후2시 ~ 4시 장 소 : 중앙도서관 인문과학실(지하2층) 세미나실 진 행 : 사회과학대학 경제통상학부 경제학전공 민세진 교수 선정도서 :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장하준 저, 부키 2007 『사다리 걸쳐차기』『왜도난마 한국경제』『국가의 역할』등을 통해 경제학과 경제현실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시도하였던 장하준 교수가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집필한 책이다. 시작은 약간 우울하지만,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변화시켜 개도국들의 경제 상황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낙관적 분위기로 끝을 맺는다. 정 원 : 10명
3. 신청방법 :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토론도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 선정도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독서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86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비즈특강 핸드백 핸드폰 줄 만들기

◆ 일 시 : 11월 27일(목) 15시
◆ 장 소 : 계산관 A동 1층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비 용 : 3천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2260-8854)

여대생 커리어 개발 센터

커플면어캠프

- 서로에게 공감하고 동감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에 대해 감동하는 시간

서로에 대해 존중하는 자질을 키우고, 올바른 성 역할을 이해하고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시간
우리 지금 사귀고 있어요~!
본 캠프에 참여할 행운의 커플 10쌍을 찾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일정, 시간, 프로그램명, 내용, 장소. Includes details for MBTI 성격유형검사,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올바른 성의식/피임법/성리주지향드론졸업 만들기, 커플 북 이벤트/타임캡슐/면허증 교부.

□ 신청방법 : 전화접수(☎2260-8853-5) 직접방문접수(계산관 A동 1층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모집인원 : 딱~!! 커플 10쌍

양성평등상담소 & 중구건강가족지원센터

히하 '햄릿' 이 대학가를 강타하다

이해랑예술극장 개원기념 '햄릿', 오늘(24일)부터 4일간 공연



▲ '햄릿' 연극 연습에 한창인 연극학과 4학년 학생들

사진=이정훈 객원기자

영하로 떨어진 기온 탓일까. 몸은 움츠러들고 옷의 두께는 점점 두꺼워진다. 이 좁 되면 한겨울에도 찬물로 샤워를 하는 사람, 눈 내리는 날씨에 반팔로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레 이슈가 되기 마련이다. TV에나 나올법한 신기한 일들이 지금 우리대학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면?

지난달부터 문화관 지하 1층의 소극장에서는 한여름 밤의 더위라도 느끼는 듯 '조금이라도 얇게' 옷을 입는 유행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유행의 흐름은 바로 다음 아닌 연극 '햄릿'의 공연 연습을 위한 배우들의 열연에 있었던 것. 한겨울속의 한여름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는 사람들, 우리대학 연극학과 4학년 학생들의 졸업공연 연습에 찾아가 보았다.

"하나, 둘, 셋"
우렁찬 목소리가 소극장 전체에 울린다. 본격적인 공연 연습을 진행하기에 앞

서 가볍게 몸을 푼다. 두 사람의 손에 들려진 줄이 팽팽하게 돌아가고 배우들은 줄의 박자에 맞추어 발을 구르며 시작한다. 이구동성으로 크게 숫자를 세어 나가며 한 뼘 한 뼘 숨을 고른다. 그들이 긴 줄넘기를 몸풀기 운동으로 택한 이유는 바로 "즐거움 시작"을 위해서다. 햄릿의 연출가 양용민(연극 3)군은 "공연 막바지에 이르러보니 배우들의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상당해요, 가볍게 출발할 수 있는 운동을 고안해 낸 것이 긴 줄넘기였죠"라고 말한다.

함께 발을 맞춰 뛰어야만 줄에 걸리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운동이 긴 줄넘기이다. 그들은 단순히 발을 구르며 운동을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호흡을 맞춰가며 배려하는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모든 배우들이 함께 뛰어넘는 줄넘기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들의 연기 호흡 또한 한층 나아진다.

"박자가 안 맞는다, 자! 에너지를 좀 가



위 사진들은 햄릿이 죽은 선왕을 만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러 선왕의 혼령(가면) 속에서 진정한 선왕의 혼령을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햄릿 공연 안내

- 공연기간 : 12. 24~27
- 공연시간 : 4시/8시 (1시간 30분)
- 티켓배부 : 선착순 입장(수용좌석:300석)

지시고"

보통의 연극 준비기간은 약 5개월 정도이지만, 햄릿의 준비 기간은 1개월에 불과했다. 짧은 기간 내 5개월의 분량을 소화하기란 결코 만만치 않은 일하기에, 연습 내내 발걸음이 분주하다. 음악을 켜고 동시에 긴 줄넘기를 하며 웃고 즐기던 배우들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천장의 조명이 비추는 극장의 무대 위에는 오직 진지한 표정의 배우들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다시, 다시, 또 다시" 음악을 켜다 켜길 여러 번 반복해가며 그렇게 하나의 장면을 몇 시간씩 꾸려나간다. 책상을 일정 간격으로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고, 배우들의 호흡을 조정하고, 서로의 느낌을 맞춰 나간다.

이번 햄릿 연극은 기존의 햄릿 연극과는 다르게 특별한 장식을 건너내고 인간의 내면에 충실한 연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기에 보너스 한 가지, 바로 클래식한 햄릿과 역동적인 합창의 만남이다. 고전의 햄릿과 현대의 합창이 만나 이뤄낸 화음, 연극학과 4학년 학생들의 지휘 하에 이뤄지는 이번 연주회의 화음은 완벽하다.

대사를 외워가며 연습을 반복할 때마다 배우들은 항상 생각한다. 매번의 연습을 실천처럼. 실천은 연습 할 때의 만큼만. 그들의 이름은 다름 아닌 배우다.

"저희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극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묻자, 연극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뤄지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꼽는다. 자신의 생각을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연극이 지니는 가장 큰

매력 중의 하나다. 하지만 관객들, 배우들, 스태프 많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부딪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연극이기에 서로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연극배우의 삶은 가난하다' 물론 당연시 되는 명제까지야 아니겠지만, 배우들의 삶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연극의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연극판에는 '10년 판,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자'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이다. 자신이 좋아 하는 일이고, 끈기를 가지며 마음을 다잡는다면 누구나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연습 내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을 연신 입에 달고 사는 그들이지만 꼭 9년째 배우 생활의 고비가 가장 힘이 드는 시기다.

'인생은 연극이고 인간은 배우'라고 어느 유명 배우는 말했다. 인생이라는 연극에 인간이라는 가장 완벽한 대사까지. 이미 배우에게는 내재돼 있다는 말이 아닐까. 배우도 대사도 이미 준비돼 있으면 그들에게는 어디든 무대가 될 수 있다. 9년이 어려울 뿐 10년은 쉽다.

'꿈은 이루어진다'
어쩌면 월드컵 대표 선수를 뽑는 만이 아니라 연극배우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희망고문인 될지 모르는 말이다.

"이제 남은 건 침묵뿐이다" 햄릿의 여러 명대사 중 대부분의 관객들이 베스트로 꼽는 대사다. 지금의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침묵을 지키며 배우들의 연기에,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김활란 기자
lan@dongguk.edu

금주의 DUBS

❖ 학내불만을 말하다. 불만ism

"나는 우리학교의 이것이 불만이다!", '대체 왜 그런 건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등 학우들이 생각하는 우리학교에 대한 불만과 학교가 고치지 못하고 있는 고질병은 무엇일까? 앙케이트 조사를 통해 학교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을 직접 들어보고, 학교 관계자를 찾아가 그 불만을 건의하는 시간! "불만ism"



다음 주에는 학내언론기관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을 들어보는 "학내언론기관 편"을 방영한다. 학내언론기관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과 바라는 점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내언론기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연출 : 김은영 PD / 촬영 편집 : 김수민 ENG / 진행 연기 : 최혜미 ANN

❖ 캠퍼스의 이상한 영웅, 나도람

기존의 정규 TV프로그램이 영상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학우들에게 도움을 줬다면 이번엔 다르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상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써 학우들 혹은 학교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이런 기회를 통해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하지만 동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6화로 구성되어 있는 '나도람'은 현재 2화까지 진행된 상태. 1화는 '영웅의 출현'으로 나도람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학우들에게 자신을 홍보하고 캠퍼스를 청소하는 내용으로 구성, 2화는 '달려라 나도람'이라는 제목으로 교내 미화원 아주머니와 수위 아저씨의 업무를 도와드리는 내용이였다.



다음 주 5화에서는 4화에서 등장한 의문의 사나이와 다시 만나 마지막 결투를 벌이는 내용이 방영될 예정이다.

연출 : 김현호 PD, 오소정 PD / 촬영 편집 : 이이림 ENG / 진행 연기 : 장진혁 ANN

본 영상은 교육방송국 홈페이지(<http://www.dubscast.com>)를 통해 볼 수 있다.

이해랑예술극장 12월 공연 안내

코카서스의 하얀 동그라미 재판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대표작품으로 손꼽히는 작품. 이번 공연은 브레히트가 작품에 담아낸 의미를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였다.

일 시 : 12월 3일 ~ 6일
연 출 : 손범호
티켓료 : 무료
출 연 : 연극학과 4학년

오셀로

오셀로가 질투에 눈이 멀어 사랑하는 데스데모나를 살해하게 된다는 비극적인 이야기.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해 본다.

일 시 : 12월 10일 ~ 12일
연 출 : 임현연
티켓료 : 무료
출 연 : 연극학과 3학년